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2017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제주 삼성혈의 풍수와 신화적 의미의 해석

지도교수 : 이 경 영

경기대학교 예술대학원

동양철학전공

박 혜 정

제주 삼성혈의 풍수와 신화적 의미의 해석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경기대학교 예술대학원

동양철학전공

박 혜 정

박 혜 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2018년 6월

경기대학교 예술대학원

목 차

표 목차 ····· iii
사진 목차 ····· iv
지도 목차 ····· v
감사의 글 ····· vi
논문 개요 ····· ix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선행연구의 검토 ····· 2
3. 연구범위와 방법 ····· 6

Ⅱ. 삼성혈의 역사적 전개와 설화 ····· 8
1. 삼성혈의 역사적 의미 ····· 8
2. 삼성혈의 인문 · 자연지리적 요소 ····· 14
3. 삼성혈의 설화 ····· 22

Ⅲ. 삼성혈의 풍수적 해석 ····· 31
1. 삼성혈의 주산과 안산 ····· 31

2. 삼성혈의 혈 ····· 37
3. 삼성혈의 사격 ····· 44
4. 삼성혈의 물 ····· 48
5. 삼성혈의 좌향 ····· 54

Ⅳ. 삼성혈의 설화에 적용된 원리와 이해 ····· 61
1. 삼성혈의 설화에 반영된 풍수원리 ····· 61
2. 삼성혈의 천지인(天地人) 삼합사상 해석 ····· 69
3. 삼성혈의 지모사상과 생명탄생 원리해석 ····· 76

Ⅴ. 결론 ····· 80

참고문헌 ····· 83

Abstract ····· 87

표 목 차

〈표 1〉 조선유학자들의 동기감응론 인식비교 ····· 40
〈표 2〉 주산 방위를 측정하여 음양 구분 ····· 55
〈표 3〉 대오행을 배속시킨다.(홍범오행활용) ····· 56
〈표 4〉 오행의 국에 따라 포태법 순환 기준방위와 포태 시작점 ····· 56
〈표 5〉 호순신지리신법 적용 ····· 57
〈표 6〉 3숫자가 가리키는 의미 ····· 72

사진 목차

〈사진 1〉 고량부가 나왔다는 삼성혈 안내문 ····· 11
〈사진 2〉 고량부가 벽량국 공주와 혼인했다는 혼인지 ····· 24
〈사진 3〉 벽량국 세공주가 처음 상륙한 성산읍 온평리 연혼포 ····· 25
〈사진 4〉 고량부가 활을 쏘아 터전을 정할 때 화살이 꽂혔던 돌 ····· 26
〈사진 5〉 고량부가 나왔다는 삼성혈 내 구멍 3개 ····· 43

지도 목차

〈지도 1〉 1861년에 제작된 대동여지도 상의 삼성혈 ····· 21
〈지도 2〉 1/ 25,000 제주 삼성혈 ····· 37
〈지도 3〉 1/ 5000 제주 삼성혈 ····· 48

감사의 글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이경영 교수님을 비롯하여 박성현 교수님, 특히 풍수적 접근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정해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남쪽과 전혀 다른 지리적 환경이었고, 그곳에 사는 분들의 정서 속에는 삼성혈이라는 최상의 입지 속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영속성을 내포하고 있었을 것이다. 본 논문「제주 삼성혈의 풍수와 신화적 의미의 해석」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주제로 한 연구이며, 고・양・부 세 성씨 조상들의 삶이 응축된 신화적 숨결이었습니다.

본 학위 논문 안에 풍수에 관한 한편의 시로 남길 수 있어 더욱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몽글몽글한 산세, 이곳은 물이 환포하고 있는 곳,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맑은 물을 싣고 있는 집[淡載軒]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높은 들[淡載軒]

晶浍　박혜정

山高壑深 山水各位　(산고학심 산수각위) 산 높고 골 깊어 山水가 각각인데
借景之處 委託吾心　(차경지처 위탁오심) 그 경치 빌린 곳에 내 맘을 맡겨두고
箇箇作名 角地曲水　(개개작명 각지곡수) 도처에 이름을 붙여 산모랭이 굽도리라
高一尺爲山 低一寸爲水 (고일척위산 저일촌위수)　한 척 높은 땅은 山이라 우뚝 섰고
한 치 낮은 곳은 江이라 누워서는

夢中又似夢 悠然之水流 (몽중우사몽 유연지수류)

꿈결인 듯 아닌 듯 흘러 흘러 가노라

微弱之身 晷刻滯留 (미약지신 구각체류) 작디작은 존재로 잠깐을 머무르다
何有定處 端坐安息 (하유정처 단좌안식) 어느 곳을 택하여 휴식에 들까나
一直擱放 順理流淌 (일직각방 순리유창) 그대로 둘작시면 순리대로 흐를 텐데
當晝酣臥 到夜猶醒 (당주감와 도야유성) 낮이 되어서는 단잠에 젖어들고
밤에 다다르면 오히려 깨어서는

風也自來 飄也自去 (풍야자래 슬야자거)
바람은 저절로 왔다가 저절로 가는구나

높은 들
(淡載軒)

晶浍 박혜정

산 깊어 토해낸 강 산과 물 내린 자리

산 경치 빌리고 借景 마음은 맡겨놓고 낱낱이 이름짓네 모랭이 골개물 빛
한 치 낮아 물이 되고一寸低爲水 한 치 높아 산이 되고 一寸高爲山

꿈꾸듯 꿈꾸지 않고 도도히 흘러가네

낮이면 잠이 들고 밤이면 깨어지고

꼬깃꼬깃 꿈틀꿈틀 잠깐만 머무르다가, 이유 없이 높은 들 아래 넘어 지다가

어느 자리에 가 앉을까? 졸졸졸 그냥 두면 원래대로 흘러가는 저것

바람도 저절로 오고 저절로 가고 있네

(사) 한국시조시인 협회 時調美學 2018 여름호 (風水詩 수록된 작품)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공간적 질서 속에 인간(人間)이 서로 상생상보(相生相補)의 관계에 놓여야 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삼성혈의 풍수와 신화적 의미의 해석에 초점을 두어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 삼성혈(三姓穴)은 탐라국(耽羅國)의 제주신화 발생지로 고 · 양 · 부 세 성씨가 최초로 정착한 곳이다. 삼성혈에서는 한 사람을 내세워 천신(天神)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천군이라 하였으며, 이들 부족(部族)을 조상(祖上)이라는 의미로 부각하였다. 이러한 삼성혈 의례(儀禮)의 질서화는 인간들의 삶에서 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삼성혈이 대지에서 인간이 용출했다는 것은, 대지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관념으로 부터 시작된 것이다. 즉, 하늘과 땅 사이 구멍에서 고 · 양 · 부 3 성이 탄생했다는 것은, 동양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대지의 생산력을 토대로 한 지모신신앙(地母神信仰)의 반영이다.

삼성혈의 천지인 삼합(天地人 三合) 원리는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원리, 상수학(象數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삼성혈의 삼(三)은 하늘(天), 구멍(穴), 땅(地)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곧 삼승(三乘)의 개념이다. 여기에서 고 · 양 · 부 삼신이 용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삼신사상이다. 또한 명당의 핵심인 혈(穴)은 여성의 자궁(子宮)과도 같으며, 생명력(生命力)과 관계되는 공간이다. 즉, 음양(陰陽)의 결합으로 생명이 잉태(孕胎)되는 것이고, 혈(穴)에서 천지인 삼합사상과 생명탄생의 원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씨 양씨, 부씨 3 성(姓)이 배출된 3개의 성혈은, 경험적(經驗的) 리얼리티의 정황과 풍토로 만들어진 신화화된 인간의 주체적 의식이며 풍수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 삼성혈의 풍수와 신화적 의미의 해석은 제주인의 삶과 사고가 반영되어 있고 선조들의 탄생설화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시작에서 땅은 신

화, 전설, 민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공동체와의 소통이고, 생명의 시작점으로 생각과 마음이 확장된 것이다. 결국 신화탄생이라는 것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산(山), 수(水), 방위(方位), 인간(人間)이 서로 상생상보(相生相補)의 관계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삼성혈(三姓穴), 지모사상(地母思想), 생명탄생원리, 풍수, 탄생설화, 제주인의 삶, 음양론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간(人間)은 역사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인간의 삶에서 문화(文化)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다. 제주도 또한 한반도 서남해안에 있는 섬으로, 제주만의 지리적 환경은 한반도와 다르게 고립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제주의 기록 신화인 삼성신화(三姓神話)는 민속학적(民俗學的) 제주 무가와 연결되어있고, 인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제주 특유의 문화적 의식에 바탕이 되었다. 이처럼 제주 삼성혈은 역사 · 민속 · 설화 · 무속 · 언어 · 민요 등 문화 전반에 제주학(濟州學)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룰 삼성혈(三姓穴)은 탐라국(耽羅國)의 제주신화 발생지로 그 자체적으로도 신화적, 역사적, 풍수적으로 상당히 연구 가치가 있는 곳이다.

삼성혈의 고 · 양 · 부 씨의 탐라국 시조에 나타난 제의적(祭儀的) 성격과, 제주 개국 신화 탄생의 배경이 된 고량부의 삼성혈이 기저적으로 상수학적 풍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삼성혈의 풍수와 신화적 의미의 해석은 시간과 공간의 합일점을 찾고 있는 현대인에게 현실이 된 그림자이며, 인류문화의 정신적 가치성(價値性), 문화적 상징성과 창조적(創造的) 삶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처럼 제주 삼성혈의 풍수와 신화는 탄생 시부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신화(神話)는 비현실적 표면(表面)에서 ‘허황된 이야기’ 로 인식되기 쉽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면(裏面)을 드러내는 것이며, 환상(幻想)으로 어우러진

감각적 외피 속에 본질적 사유(思惟)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화적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삼성혈이 대지(大地)의 생산력을 토대로 한, 지모신 신앙(地母神 信仰)을 반영한 생명탄생(生命誕生)의 풍수적 접근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삼성혈에 나타나는 '풍수설화'의 접근은 풍수적 공간에 담긴 인격화(人格化) 과정이다. 또한 삼성혈이 상징하고 있는 고 · 양 · 부 삼을나 에서 풍기는 '3'이란 숫자와도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제주 삼성혈의 인문 · 지리 · 풍수적 접근을 시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풍수적 기본이론 체계인 용(龍), 혈(穴), 사(砂), 수(水), 향(向)을 통하여 제주 삼성혈의 풍수와 신화적 의미의 해석을 하려한다. 둘째, 삼성혈에서 바라본 천지인(天地人) 삼합의 원리를 지모신 신앙(地母神 信仰)이 반영된 요인들을 추출하여 동양적 사유(思惟)로 생명탄생 체계와의 연관성, 규칙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또한 공간적 질서 속에 인간(人間)이 서로 상생상보(相生相補)의 관계에 놓여야 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삼성혈의 풍수와 신화적 의미의 해석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에서 제주 삼성혈의 풍수와 신화적 의미 해석을 하기 위한 선행연구 검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강엽[1]『신화』의 개념은 완전한 신(神)의 이야기로써 참된 이야기로의 인식이며, 불완전한 이야기가 아니다. 허춘[2]은 설문대할망으로 대표되는 거녀설화(巨女說話)로 여성의 창조성을 나타내며, 신화 · 전설 · 민담의 제 요소를 갖추고 있고, 문화 영웅적 면모를 띠고 있다. 李

1) 이강엽 ,『신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1955.
2) 허춘 ,『제주 설화 연구』, 경인문화사, 2016.

花[3]의 풍수설화(風水說話) 논문은 조선조 풍수 인식과, 풍수 수용의 내면화, 풍수신앙의 종교적 위상을 연구하였다. 張長植[4]은 한국인에게 끼친 사상과 의식적인 측면에서 정주(定住)공간 안에 풍수 설화를 문학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제주인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 현길언[5]의 장수설화에 잘 나타나 있다. 고병석[6]의 논문에서 활을 쏘아 서열(序列)을 정하는 화소(話素)는 제주도의 당신화(堂神話)에 흔히 나오는 화소라고 하였다.

둘째, 인문자연 지리적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왕충의『논형』[7]에서 제사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왕충은 봄의 천둥소리에 꿩이 놀라거나, 동면한 벌레나 뱀이 기어 나오는 현상은 양기에 감응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허춘[8]의 연구는 제주의 지리적 위치에 의한 운명과 본토(本土)에 대한 선망을 갈구하고 있다. 이형상[9]은 목민관 시절 <탐라순력도>를 제작하여 제주 전역을 탐방하면서 자연, 역사, 산물, 풍속, 인구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지리적 다양성”이 갖는 “일반적 현상”은 요하네스 페르『강의』[10]에서 “부차적인 측면”으로 “시간 속에서 언어의 움직임이란 절대적 원리”, 즉 “운명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온갖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吳洪錫[11]은 제주지역이 전면적의 90% 이상을 용암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용천(湧泉)이 분포하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따뜻한 난류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라고 하였다. 이병도[12]는 풍수지리에도 형태(形態)

---

3) 이화 ,「조선조 풍수신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6쪽.
4) 張長植,「韓國의 風水說話 硏究」, 慶熙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2, 24쪽.
5) 현길언,『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1981.
6) 고병석, 「三姓神話의 儀禮的 性格과 敎育的 意味」,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6쪽.
7) 왕충,『 논형 』,동아일보사, 2016.
8) 허춘, 『제주 설화 연구』, 경인문화사, 2016.
9) 이형상, 이상규· 오창명 옮김,『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10) 요하네스 페르,『 언어학과 기호학 사이』,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2.
11) 吳洪錫, 『聚落地理學』, 敎學硏究社, 1989.
12)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 을유문화사, 1954.

이상의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이론과 근거(根據)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의미로 보아 또한, 이를 지리철학이라 하였다.

셋째, 삼성혈의 풍수적 해석을 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疑龍經[13]에서 주산(主山)을 지아비로 안산(案山)을 아내로 비유하여 "지아비 산은 높고 엄하며 아내 산은 낮게 뻗어가야 한다" 라고 하였다. 호순신『地理新法[14]에서 무곡 금성체는 재물과 관련되어있고, 포근한 느낌과 경제적인 안정 속에서 아늑한 공간의 형성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윤갑원[15]의『도선 통맥 풍수』에서 풍수지리의 구성요소인 용(龍=脈). 혈(穴). 사(砂). 수(水)의 4격(四格)인 기본이론체계를 살펴보았다. 심재열[16]은 풍수지리가 입지 선정에 미치는 관계를 연구하였고, 박정해[17] 연구에서 선조들의 합리적 터잡기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건축공간의 구성임을 연구하였다. 정경연[18]은 와혈을 새둥지나 소쿠리 속처럼 오목하게 혈이 생기는 것이고, 손바닥을 젖혀 놓으면 가운데 동그랗고 움푹한 곳이 있다 하여 장심혈(掌心穴)이라 하였다. 『錦囊經 · 靑烏經』[19]에 청룡(靑龍)은 남성적 기가 강하며, 호랑이로 분류되는 땅들은 하늘의 백호(白虎) 기운이 엉긴 것이다. 춘추번로『春秋繁露』[20]에서는 몸의 형체인 산과 혈과 맥을 이룬 물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이중환(李重煥)『택리지』[21]에서 물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궁수라고 하는데, 물은 활의 모양으로 굽이굽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김추

13) 楊筠松, 김두규 역,『疑龍經』,비봉출판사, 2009.
14) 호순신, 김두규 역해,『 地理新法』, 比峰出版社, 2001.
15) 윤갑원,『도선 통맥 풍수』, 도서출판 미래 2008.
16) 심재열,「풍수사상의 입지선정 영향에 관한 연구」,인천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0, 123쪽.
17) 박정해,「朝鮮 儒敎建築의 風水的 特徵에 關한 硏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122쪽.
18) 정경연, 『정통풍수지리』,평단문화사, 2003.
19) 辛盛銀역,『 錦囊經·靑烏經』, 자유문고, 2005.
20) 南基顯 역주,『春秋繁露』, 자유문고, 2005.
21) 李重煥, 정무영 옮김,『택리지』,(주) 을유문화사, 1993.

윤[22] 연구에서 방위는 근원적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공간의식의 한 형태이다. 풍수에서 좌향의 의미를 볼 때, 방위는 인간에 의해서 설정된 인식양태이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양태에 의해서 공간은 실제적 경험 내용으로 수용된다고 하였다. 朴基順[23] 논문에서 토(土)는 오행의 상위 개념으로 공간적 중(中)의 성질을 가지고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현대사회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주설화와 풍수부분을 연구한 변창두[24]는 제주의 지명과 전설, 풍수지리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넷째, 천지인(天地人) 삼합의 원리를, 지모신 신앙(地母神 信仰)이 반영된 요인들을 추출하여, 동양적 사유(思惟)로 생명탄생 체계와의 연관성, 규칙성을 찾아보기 위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朴愛蘭[25] 연구는 하늘로부터 높은 숭(崇)을 본받으며, 땅의 낮은 예(禮)를 법칙(法則)으로 삼는 것이 천하의 도리라 하였고, 김승호[26]는 팔괘가 3으로 이루어진 이유에서 공간은 근본적으로 무한히 존재한다고 하였다.『설문해자주 』[27] <노자(老子)>는 “一은 二를 낳고 二는 三을 낳고 三은 만물을 낳는다.” 하였으며, 풍우란[28]은 구체적 사물의 생성은 기가 재료이고 리가 형식이라 하였다. 김원일,『장자』[29]에서 삼신인이 지중에서 솟아 난 이 용천은 제주민들에게 식수문제 해결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하였고, 유예상[30]의 공간은 인격화 과정이라 하였으며, 최미영[31]은 전일적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동양적 사유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

---

22) 김추윤, 「南上方位考」, 신흥대학교 논문집, 제25집, 2002.

23) 朴基順,「五運六氣의 世界觀에 관한 硏究」, 慶北大學校大學院 159쪽.

24) 邊昌斗,「제주도 지명및 전설과 풍수지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95쪽.

25) 朴愛蘭,「生命思想, 生態易學觀과 人間學的 位相」,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68쪽.

26) 김승호,『주역인문학』, 다산북스, 2015.

27) 염정삼, 『 설문해자주 』, 부수자 역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7.

28) 풍우란,『 중국철학사 』, 까치글방, 1999.

29) 김원일,『장자』, 북마당, 2010.

30) 유예상,「노자사상적 관점에서의 공간해석과 실험적 적용에 관한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57쪽.

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신화의 탄생에서 시작된 공간의 인격화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삼성혈의 풍수와 신화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와 방법

제주 삼성혈의 풍수와 신화적 의미의 해석을 연구하는,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제주 삼성혈의 연구 배경과 목적, 선행연구, 그리고 연구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Ⅱ장에서는 삼성혈의 역사적 전개와 설화를 통해 제주 삼성혈의 역사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Ⅲ장에서는 풍수적 기본이론 체계인 용(龍), 혈(穴), 사(砂), 수(水), 향(向)을 통하여 삼성혈의 현황 및 입지적 배경과 점혈적, 상수학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Ⅳ장에서는 삼성혈에서 바라본 천지인(天地人) 삼합의 원리를 지모신 신앙(地母神 信仰)이 반영된 동양적 사유(思惟)로, 생명 탄생 체계와의 연관성, 규칙성을 찾아보았다.

Ⅴ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삼성혈에 대한 내용 파악과 신화적 요소 및 입지적 요인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검토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탐라국의 시조 탄생과 관련된 상수학적(象數學的), 점혈법적(占穴法的) 해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현재 제주 삼성혈은 도시화 진행으로 인한 주변사격의 훼손 등으로 풍수적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근 정부가 발행

31) 최미영,「동양적 사유에 의한 감성 공간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7쪽.

KGU

한 1 / 5000 또는 1 / 25000 지도는 본 연구에 있어 삼성혈에 대한 풍수적인 요인들을 고찰하는데 가장 실증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하였다. 즉, 등고선을 이용한 용의 흐름이나 사격의 위치를 파악하였고 주변 산지천은 삼성혈을 환포하고 있으며, 삼성혈은 평지에 위치한 평지혈이다. 신화는 옛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만, 옛 지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제주 삼성신화는 이미 고려사에 모흥혈로 기록되어 있고, 조선 중종때 성역화된 삼성혈이 옛 지도인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철종 12년/ 보물제850-1호)에 표기되어있다.

셋째, 조선중기에 호순신(胡瞬申)의 지리신법(地理新法)은, 구성(九星)과 연관성이 있는 향법(向法)이다. 이에 호순신의 지리신법 이론을 적용하여 좌향(坐向)을 대오행으로 구분한 후, 육친의 관계를 검토하여보았다.

그리고 張籌根의「三姓神話 解釋의 한 試圖」학회지 연구에서 밝혔듯이 삼성신화는 건국신화의 위치를 고의적으로 성씨 중심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이에 시조신화의 성씨 중심인 족보(族譜)에 관한 연구는 배제하여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Ⅱ. 삼성혈의 역사적 전개와 설화

1. 삼성혈의 역사적 의미

제주의 옛 이름, 탐라에는 태초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약 4,300여년 전 한라산이 신령한 화기를 내리었고, 북쪽 기슭에 있는 '모흥(毛興)' 이라는 곳에 삼신인(三神人)을 동시에 탄강(誕降) 시켰다. 삼신인이 태어난 곳을 모흥혈(毛興穴)이라 하고, 용출(湧出)한 이곳을 삼성혈(三姓穴)이라 하였다. 이곳은 3개의 지혈(地穴)이 있으며, 이 신인(神人) 들을 이름하여 을나(乙那)라 하고, 을나는 세 성씨의 시조이며 탐라국을 개국하였다. 즉, 삼신인은 고을나(高乙那) · 양을나(良乙那) · 부을나(夫乙那)이다. 이처럼 제주 삼성신화의 시조신화는 어떤 특정 집단의 처음을 설명하는 신화이다.

시조신을 설명할 때 <단군신화>는 가장 설명하기 쉬운 예일 것이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정 신단수에 내려와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고조선의 창시자이다. 마찬가지로 주몽은 고구려의 창시자이며, 로물루스는 로마의 창시자이며, 반호(盤瓠) 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묘족 등의 시조신이다.

이처럼 어느 국가, 어느 종족이든 자기 부족의 시작을 설명하는데 얼마간의 신화가 따라 붙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신화의 주인공은 대개 현실 세상이 아닌 신성한 곳에서 절대적 힘을 지닌 존재가 직접 옮겨오거나 그 후손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역적 이동이나 외부세력과의 알력이 자주 드러나는 것은 실제 국가나 종족이 뿌리를 내릴 때의 역사적 편린으로 이해된다고 특정집단의 처음을 설명하고 있다.[32)]

제주도는 이미 초기 신석기 시대(약 1만여 년~8천 년 전) 이래로 현생인류 즉, 신인이 살고 있었다. 고산리나 북촌리 등에서 발굴되는 돌을 가공한 다양한 석기나 동물의 뼈를 다듬어 골각기, 토기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모리, 삼양동, 가파도 지역에서도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유적이 발굴되고 있다. 이는, 고인돌, 간석기, 토기, 독무덤 등이며 제주도가 한반도와는 다른 역사적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다.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 476년 4월 '탐라국이 특산물을 바쳤으므로 임금이 기뻐하여 그 사자에게 은솥이라는 벼슬을 주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미 탐라라는 고대국가가 있었던 것이 짐작[33]되었고, '탐라' 왕국을 건설하여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를 이루었다. 삼신인에 관하여『남환박물』, 「고씨세계록 高氏世系錄」 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 세 사람이 활을 쏘아 땅을 정하였다. 고씨(高氏)가 산 곳을 제일도(第一徒)라 하였는데, 한라산 북쪽 일내마을(一徒里)이다. 양씨(良氏)가 산 곳은 제이도(第二徒)라 하였는데, 한라산 오른쪽 날개의 남쪽 산방마을(山房里)이다. 부씨(夫氏)가 산 곳은 제삼도(第三徒)라 하였는데 한라산 왼쪽 날개의 남쪽 토산마을(土山里)이다.[34]

탐라국이 붕괴된 12세기 초부터 이조 말에 이르기까지 8세기 동안 이곳의 행정을 맡았던 목민관(牧民官)의 수는 500여 명에 이르는데, 그들은 거의가 수탈과 압제의 탐관오리들이었다. 한마디로 제주도는 행정부재(行政不在)의 땅이었다. 그러기에 민란이 계속되었고, 이는 제주인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한다.[35]

---

32) 이강엽 ,『신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1955, 24~25쪽.

33) 김헌선,「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巨食性의 의미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10쪽.

34) 이형상, 이상규· 오창명 옮김,『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86-87쪽.

35) 현길언,『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1981, 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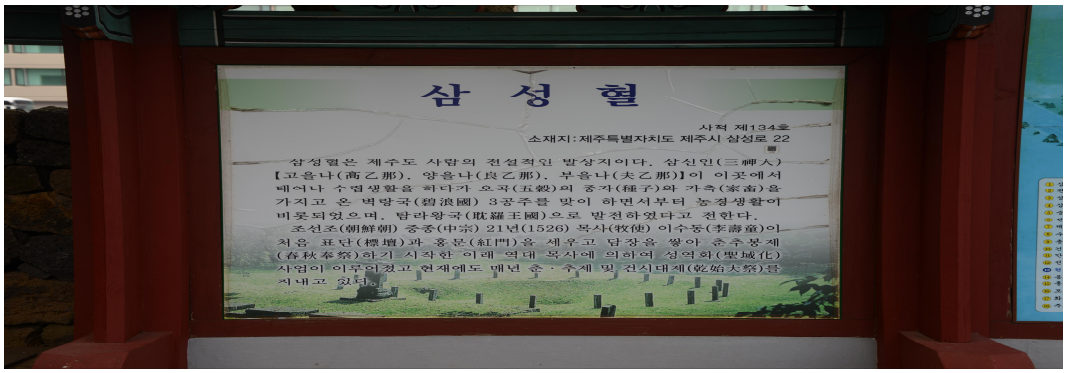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 이후 왕권의 초월적 사상은 없어졌고, 불교로 귀의(歸依)하여 위난(危難)의 시기에 기불(祈佛)행위를 하면서 철학화되었다. 고려시대는 주술이나 종교성이 강한 사회였으며, 풍수신앙을 통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러한 신앙의 공인화 과정에 도선(道詵)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고려조 태조 왕건의 개국은 국토의 발전과 통치를 위하여 삼경(三京)의 모티브 즉, 개혁적 모티브를 사용하였다.

고려에 복속되기까지 천년(千年) 이상 독자적인 역사를 유지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1629~1823)이 내려져 200년 정도 본토와 격리되어 있었다. 이는 절해고도라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숱한 고초를 겪었던 역사적 배경으로 본토와는 다른 언어(言語)와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다. 다음은 최보의 탐라 시 35절의 시(詩)이다.

발해의 남쪽, 하늘이 바다와 맞닿은 곳	渤海之南天接水
큰 물결이 끝없이 구비치네.	鯤潮鼉浪無涯涘
그 가운데 아득히 탐라국 있으니	耽羅國在渺茫中
한 점 탄환같이 9 백리 떨어져 있네.	一點彈丸九百里[36]

그 후 역사시대 제주는 탐라국 왕손들이 신라에 입조하여 작호(爵號)를 받았으며, 신라, 백제, 고구려를 포함하여 중국 · 일본 · 유구왕국과도 독립국가로서 해상교역을 하였다. 또한 수천 년간 탐라국으로 왕국을 유지하다가 고려시대에 합병됐다고 한다. 탐라국은 고려에 예속돼 희종 때(1211년) 제주라 불렸다. 그러나 고려 말에 원나라와 고려에 번갈아 지배받으며 명칭이 늘 바뀌었다. 이후 1374년(공민왕 23년)때에는 예속된 원나라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면서 지금까지 제주라고 불리고 있다.

36) 이형상, 이상규· 오창명 옮김,『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227쪽.



<사진-1> 고량부가 나왔다는 삼성혈 안내문

삼성혈에서 제(祭)는 조선 중종 21년(1526) 이수동 목사가 모흥단(毛興壇)에서 올리기 시작하였고, 즉, 고량부 삼성은 여기 모흥혈에서 출현했다고 한다. 1698년(조선 숙종24) 유한명(柳漢明) 절제사는 모흥단에서 제사를 지냈고, 이는 삼을나묘(三乙那廟)이다. 그리고 해마다 동짓달에 제향을 올리도록 하였고, 1702년(숙종28년)에 이형상 절제사는 조상을 숭상하는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삼을나 묘를 동쪽으로 옮기고 사묘를 세우고 조정에 아뢰어 춘추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37] 고 전해진다.

제주 삼성혈은 1772년(영조 48)에 양세현(梁世絢) 목사가 바깥 담장을 쌓아 소나무를 심게 하였다. 또한 제전(祭田)을 마련하여 향청(鄕廳)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리고 사적지임을 알리는 한글과 영문 표기의 안내문을 지나면 출입구인 건시문[38]을 만난다. 제의 준비처에는 많은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 건시문을 지나 붉은 흙인 송이를 왼쪽 바닥에 깔았으며, 이에 자리하고 있는 숭보당을 중심으로 동남쪽에 숭보당(崇報當)[39]과 전사청(奠祀

37) 제주유맥육백년사, 1997, 279쪽.

38) 삼성혈로 들어 오는 첫 대문인 건시문은 삼문 형태로 기와를 얹었다. 양쪽 앞에는 돌하르방이 놓여 있다. 혈 안에는 울창한 수림과 몇 개의 건물을 연결하는 관람로가 갖추어져 있다. 관람로는 현무암을 판석(板石)으로 다듬어 깔아 비가 내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廳)[40], 뒷부분에 수직사(守直舍)[41], 수직사 뒤쪽에 종무청[42], 전사청 뒤쪽에 제기고[43]가 각각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지붕은 팔각형이며, 높이 0.82m의 부초석 위에 높이 0.75m, 지름 0.28m의 원형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주두(柱頭) 위에 창방과 도리를 사래 맞춤하였으며, 끝막새에는 연화문을 새겼다. 제의처 입구에는 삼성문이 세워져 있고 안쪽에 삼성전[44]이 있다. 후면 북동쪽에 북문이 있으며 남쪽에 전향문이 있다. 전향문 서쪽에 혈단문이 있고, 그 안쪽에 삼성혈의 혈단, 혈비가 자리하고 있다.

1785년에는 정조가「삼성사(三姓祠)」라는 편액(扁額)을 친히 하사하여 왕(王)에 대한 예의로 국가의 제사로(國祭) 받들어 봉향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고종 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사우(祠宇)가 한때 헐리게 되었다. 이에 고종 27년에 다시 건립하게 하였으며, 1910년에는 다시 중건하게 된다. 즉, 1971년에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은 모두 해체하게 되고, 또 다시 중건하게 되었다. 문헌에 따르면 서원(書院)인 삼성사[45]는 1740년(영조16)에 안경운(安慶運)목사가 재생(齋生)을 두면서부터 유래하였다.

제주는 변방인 동시에 한반도의 땅 끝에 있는 오지었고, 조선중기 이후 당쟁에서 밀려나온 선비들의 대표적 유배지였다. 즉, 정치적으로 소외지역이었기

---

39) 숭보당(崇報堂)은 1849년(헌종 15)에 뛰어난 선비를 두어 면학하던 재사(齋舍)로서 몇 차례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재생들이 학업을 연마하던 숭보당은 1974년 12월에 현 위치로 옮겼다. 건물은 전면 7칸과 측면 4칸인 5량집으로 앞너비 15.95m, 옆너비 6.62m이다.

40) 전사청(奠祀廳)은 제향(祭享)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집으로서 1827년(순조 27)에 세워진 뒤 몇 차례 이건(移建) 중수(重修)하였으며, 2000년 9월에 중건(重建)하였다.

41) 수직사(守直舍)는 삼성혈을 지키는 사람이 사는 집이었다.

42) 종무청은 삼성혈의 제반 업무를 맡아 보는 재단사무실로 이용되는 곳이다.

43) 제기고는 제의에 사용되는 제기와 용품을 보관하는 곳이다.

44) 삼성전은 삼성사(三姓祠)를 참배하는 사람들이 분향(焚香)하는 곳이다. 삼성전의 입구인 삼성문에는 향로와 향이 준비되어 있다. 그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이다.

45) 삼성사에는 장의(掌議) 한 명과 유사(有司) 두 명, 정원 내의 30명, 정원 외 70명의 학생을 두었다. 사액(賜額)이 내려진 것은 1785년(정조9) 이월이었다. 제주 양경천(梁擎天)의 상언(上言)에 따라 예관(禮官) 고택겸(高宅謙)이 와서 '삼성사'란 왕의 어필 액자와 절목을 내렸다.

에 중앙집권 세력에 대한 혐오감이 팽배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삼성혈을 수립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육지의 대부분 서원향교 등 여러 건축물이 남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삼성혈은 북향제례를 택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복속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남향을 택하였다면 서귀포 방향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굳이 북향인 제주시 방향에 설립하였던 것은 제주관청이었던 영향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주도민의 중앙정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성혈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 한라산과 용암동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삼성혈에서 비롯하는 옛 탐라국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역사적 유적들은 민속, 풍수사상과 더불어 독특한 제주의 신화적 토착문화를 자랑하고 있다.

2. 삼성혈의 인문 · 자연지리적 요소

1) 삼성혈의 인문적 요소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동쪽은 먼 지역이었고 극동(極東)이라고 칭하였다. 동아시아라는 명칭은 '중국 문화권'을 의미하고, 고대 중국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리적(地理的)으로 더욱 명확한 명칭이다. 서구인은 자연과 신(神)을 벗어나 인간사회의 질서를 구현하였다. 이들과 비교하면, 동양은 서양의 그것과 대조적인 가치체계와 신앙(信仰) 체계, 심미적 경험(經驗)의 상이한 전통(傳統), 그리고 문학적 표현의 다른 형식 등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의 바다는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형세이어서 바닷물이 들어오기는 순하지만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의 형세(形勢)는 천지가 개벽 할 때 유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었고, 산의 다리가 육지(陸地)로 들어왔으며, 바람도 파도를 삼켰을 것이다. 이처럼 바닷물이 들고 나는 이치도 기맥(氣脈)이 이어진 자연의 현상으로 제주의 온 섬에 이름을 지었던 것이다. 즉, 제주는 사방을 가로막은 섬이어서 절망감을 주기에 충분하였고, 위리안치(圍籬安置)는 더욱 심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제주 삼성혈은 제주시 이도1동 1313번지 외 7필지에 있는 사적지(史跡地)로 탐라국 시조(始祖)에 대한 제의(祭儀)를 행하였던 장소이며, 1964년 6월 2일에 '사적 제134호'로 지정된 유서 깊은 곳이다. 특히 고, 양, 부 삼을나, 삼신인이 용출(湧出)한 세 개의 지혈 주위에는 오래된 고목으로 둘러싸여 있다. 뿐만 아니라, 고목의 모든 나뭇가지가 혈을 향하여 경배하듯 신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삼성혈은 어떠한 폭우나 폭설에도 물이나 눈이 고여 있거나 쌓이지 않는다. 따라서 삼신인(三神人)이 솟아난 모흥혈(毛興穴)을 강신장소(降神 場所)가 아닌 강신 의례를 거행하던 의례장소(儀禮場所)로 보고 있

는 것이다.

이곳 삼성혈은 하늘에서 기운이 내려온 '천신(天神)의 기운' 이며, 고구려인들도 '천손국(天孫國)' 이라 하여 하늘의 자손이 세운 나라로 인식하였다. 신라 박혁거세의 '천군(天君)' 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단체장' 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고대 국가들이 국가적으로 천신을 모시고 제천의식을 거행하였던 것이다.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동예의 무천(舞天)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사고의 측면에서 제천의식은 종교(宗教)와 주술(呪術)의 아주 대립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왕충의『논형』은, 공자가 춘추를 저술했을 당시의 정신력을 본받아 평론한 책이다. 『논형』에서 제사의 의미를 설명한『예기』「제법(祭法)」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순임금 때는 황제를 먼 조상으로 받들어 제사 지내면서, 제곡도 함께 제사 지냈다. 전욱을 시조로 삼아 제사 지내면서, 요임금도 함께 제사 지냈다. 하왕조에서도 황제를 먼 조상으로 여겨 제사 지내면서, 우임금의 아버지인 곤을 함께 제사 지냈다. 전욱을 시조로 삼아 제사 지내면서, 우임금을 함께 제사 지냈다. 은 왕조에서는 제곡을 조상으로 받들어 제사 지내면서, 선조인 명(冥)을 함께 제사 지냈다. 설을 시조로 받들어 제사 지내면서, 탕왕을 함께 제사 지냈다. 주 왕조에서는 제곡을 조상으로 받들어 제사 지내면서, 후직을 함께 제사 지냈다. 문황을 시조로 받들어 제사 지내면서, 무왕을 함께 제사 지냈다.[46]

『후한서』「동이전」에는 다른 나라의 도읍을 세울 때 각각 한 사람을 추천하여 천신(天神)에게 제사를 지냈고 이를 천군(天君)이라 하였다. 이처럼 신화에 나타나는 부족에 조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제천의식(祭天儀式)' 을 거행한 것이다. 또한 동중서는 비를 내리게 하는 기우제(祈雨祭)가 어떤 신에 대한 제사인지 알 수 없었지만,『춘추』의 정신을 부연해 제단(祭壇)을 설치하였고, 오사(五祀)를 제사 지냈다 한다.『춘추좌씨전』에서 "용성이 나타나면 우제(雨祭)를 지낸다." 용성이 나타날 무렵은 이미 경칩이다. 그러므로

46) 왕충,『 논형 』,동아일보사, 2016, 919쪽.

경칩 무렵에는 기우제[47]를 지내야 한다고 했으며, 홍수가 일어나면 토지 신(土地神)에게 제사(祭祀) 지내는 곳에서 북을 치고, 희생물(犧牲物)을 바치도록 하였다. 주술은 신을 움직이며 어떤 일을 강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가는 것이다. 수행골 · 존자암은 옛날 스님이 팔정(八定)의 도를 닦는 터이며 김정의『남환박물』, <층암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존자(尊者)가 암자를 지은 것은 삼성(三姓)(고 · 양 · 부)이 처음 일어난 때에 비로소 이루어졌고, 세 읍이 분립(分立)된 뒤에까지 오래 도록 전해졌다고 한다.[48]

이처럼, 삼성혈에서 유교식 제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광양당(廣壤堂)과 다르지 않는 곳에서 당굿의 형태인 무속제의(巫俗祭儀)가 이루어졌다. 즉, 삼성혈을 성역화(聖域化)한 것이다. 또한, 삼을나 후대의 자손과 관(官)이 주가 되어 유교식 제의가 이루어지게 된 이후에도 일정구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당굿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종교는 신의 섭리에 따른 도덕적 감각이며, 이러한 도덕적 감각을 윤리적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

삼성혈에서 구성되는 제향(祭享)은 후손들이 주가 되어서 봉향(奉享)을 각각 하고 있다. 이는 매년 4월 10일에 춘기대제를 지내며, 그해 10월 10일에 추기대제를 지낸다. 모든 제관(祭官)은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금관제복을 입는다. 또한 사흘 전에 입재(入齋)하여 목욕재계하고 제향에 임한다. 조선시대 국제로 모셨으나, 지금은 제주도민제로 봉행되고 있다. 삼성혈제는 삼을나(三乙那)의 탐라개벽(耽羅開闢)정신을 기리고 있다. 이는 제주민의 평화를 기도하며 양력 12월 10일 삼성혈(三姓穴)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탐라개벽을 따르는 뜻에서 제사의 이름을 건시제(乾始祭)[49]라고 불렀고, 제단(祭壇)은 넓적

---

47) 왕충, 위의 책, 923쪽.

48) 이형상, 이상규· ·오창명옮김,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67쪽.

49) 건시제는 과거에는 음력 11월 상정일(上丁日)에 지냈었다. 이 제사는 고을나(高乙那), 양을나 (良乙那), 부을나(夫乙那) 세 신인(神人)이 출현하였다고 하는 구멍이 있는 곳에 마련된 제단에서 지내기 때문에 혈제(穴祭)라고도 한다. 1973년 제사의

KGU

한 돌을 장방형으로 다듬어 만들었다. 각 제단 앞에 돌로 만든 향석(香石)이 놓여 있다. 사정에 따라 제단 위에 천막을 치기도 하며, 희생(犧牲)으로 신위마다 돼지머리를 올리고, 제단의 오른쪽에 관세위(盥洗位)를 둔다.

조선조 중종(中宗) 21년(1526) 이수동(李壽童) 목사가 삼성혈 주위에 돌담을 쌓게 하였다. 그리고 홍문(紅門)과 혈비(穴碑)를 세워 삼성(三姓)의 후예로 하여금 봄과 가을에 제사를 모시게 하였다. 이와 아울러 매년 중동(仲冬)에 도민으로 하여금 제사를 모시게 하는 적극적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이수동 목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삼을나에 대한 제사는 원활하지 못하였다. 이에 삼을나에 대한 제사를 권장하는 정책적 조치가 여러 번 이루어졌다.

즉, 영조(英祖) 48년(1772) 양세현(梁世絢) 방어사가 제전(祭田)을 마련하고, 향청(鄕廳)에서 혈제를 올리게 하였다. 이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천신을 모시고 조상을 시조로 받들어 제천의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경칩이 지난 적적한 시기에 기우제를 지내는 등, 농경사회의 틀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곧, 제주삼성혈은 대지의 생산력을 토대로 한 지모신 신앙(地母神 信仰)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명칭을 건시대제(乾始大祭)로 바꾸기 이전까지는 모흥단향(毛興壇享)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삼성혈을 본래 모흥혈(毛興穴)이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혈제(三姓穴祭)는 고량부삼성사재단(高梁夫三姓祠財團)에서 주관한다. 이 재단에서 주관하는 삼을나에 대한 제사로는 크게 춘제(春祭), 추제(秋祭)와 건시제가 있는데 건시제가 곧 혈제이다. 삼성혈제는 석전제(釋奠祭)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헌관(初獻官)은 지방 장관,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은 기관장과 유지 중에서 선임된다. 근래에는 초헌관은 도지사가 맡고, 아헌관은 도의회 대표, 종헌관은 군의회의 대표가 맡기도 한다. 헌관과 집사는 전사청(典祀廳)에서 재계(齋戒)를 한다. 이곳에서 제일(祭日) 오전 11시가 가까워지면 혈단 앞으로 이동한다. 삼헌관은 금관조복(金冠朝服)을 하는데, 이는 삼성혈제가 본래 탐라왕(耽羅王)에 대한 제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머지 집사들은 일반 청의(靑衣)를 입는다. 혈 앞에 비석이 있고 또 그 앞에는 나지막한 세개의 제단이 있다.

2) 삼성혈의 자연 지리적 요소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토양과 거센 바람으로 인하여 곡식을 재배하기도 힘든 곳이었다. 삼성혈의 자연지리적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성혈이 위치한 산 북쪽은 제주읍에 위치해 있으며, 옛 탐라국(耽羅國)으로 신라 때 부속국(附屬國)이 되었다. 원나라에서는 방성(房星)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하여 말과 소를 산에다 놓아 먹여서 목장[50]을 만들었다고 한다.

제주는 지리적으로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다. 곧, 풍부한 동, 식물을 거느린 산림과 계곡, 기암과 소연, 기생화산과 분화구, 동굴과 초원 등 오밀조밀한 자연경관이 천혜의 아름다움을 빚어내고 있다. 섬의 4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바닷가의 기암과 폭포, 백사장과 도서 등 해안 일대가 천연미의 절경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삼성혈은 사면(四面)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지리적 특징 때문에 삼성신 고량부와 결혼한 벽랑국 3 공주가 배를 타고 왔다는 해양신화(海洋神話)가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제주도는 삼다(三多), 삼무(三無), 삼보(三寶)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를 삼다도(三多島)[51]라고 일컫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島)는 한반도 최남단 너머 북태평양에

---

50) 이중환, 이익성 옮김,『택리지』, 을유문화사, 2013, 195쪽.
방성(房星): 28수 중에 넷째 별. 전국 시대에 중국 본토와 부근 국가의 영토를 28개 구역으로 나누고 바위에 따라 28수를 배정하였다.

51) 삼다란 石多(석다, 돌), 風多(풍다, 바람), 女多(여다, 여자)를 말한다. 삼무란 제주에는 '도적'이 없고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다고 하여 나온 말이다. 제주인들은 예로부터 거칠고 척박한 자연환경을 개척하기 위해 근면, 절약, 상부상조를 미덕으로 삼아서 도적질을 하거나 구걸을 하지 않고 집에 대문도 없이 살았다. 삼보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민속, 토착산업을 일컫기도 하고, 식용작물, 수산, 관광의 세 자원을 말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제주의 따뜻한 인심, 아름다운 자연, 특이한 산업구조를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

위치하고 있다. 제주는 한국 최대의 섬으로 9개의 유인도(有人島)를 포함한 60여 개 부속 도서와 함께, 행정구역 상 가장 작은 도(道)[52]를 구성하고 있으며, 면적이 1845.9km² 에 이른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보면 고려 목종 5년(1002)과 10년(1007)에 분화한 사실이 기록되어있다.[53] 즉, 제주도[54]는 전체가 한라산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산섬이다. 이처럼 삼성혈이 위치한 제주는 화산섬이라는 독특한 지리환경과 옛 탐라국의 역사가 깃든 특이한 민속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고유한 토착문화를 자랑한다. 제주는 신생대 제3기의 플라이오세(pliocene) 화산활동[55]이 시작한 단성화산군으로 제4기에 들어와서 완성된 대륙붕(大陸棚) 위의 화산도로써 현무암(玄武巖)[56]을 이루는 용암이 분출하였다. 그러므로 거의 전역에 걸친 전면적의 90% 이상을 용암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활동은 지금부터 1000여 년 전 까지도 계속되었다. 또한 제4기에는 시기를 달리하는 수많은 횟수의 용암이 분출하였다.[57]고 한다.

이러한 용천(湧泉)이 분포하는 제주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따뜻한 난류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이다. 고량부 세 성씨가 최초 정착한 일도, 이도, 삼도

---

52) 김헌선,「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巨食性의 의미 연구」,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8쪽.

5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 穆宗五年六月 有山溶海中 山開四孔 五日而止 其水階成瓦石 十年瑞山湧出海中 遣大學博士田拱之往觀之 人言山之始出地 雲霧晦宴 地動如雷 凡七晝野開霽 山高可百餘丈 周圍可四十餘里 無草木 煙氣冪其上 望之如石硫黃 人恐懼敢近 其之射至其山下 圖其刑以進今屬大靜縣.

54) 한국에서는 제주를 예로부터 도이(島夷), 동영주(東瀛洲), 섭라(涉羅), 탐모라(耽牟羅), 탐라(耽羅), 탁라(毛羅), 영주(瀛洲) 등이라 불렀다. 이들 명칭 가운데 '동영주'와 '영주' 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섬나라' 라는 뜻이다.

55) 신생대 제3기말에서 제4기에 걸쳐 5차례의 용암분출로 이루어진 화산도로서 지표의 90% 이상을 현무암이 덮고 있으며, '화산의 보고'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각종 화산지형이 다채롭게 발달되어 있다.

56) 현무암은 투수성이 크기 때문에, 하천은 일반적으로 비가 오고 나서 수 시간이 지나면 하도만 남는 무수 천 즉 물이 없는 건천(乾川)이 대부분이고, 해발 500m 부근에서 완전히 지하로 스며들어 천변을 따라 복류하며 기타 빗물이 들어간 지하수는 용암층의 경사를 따라 복류하여 해안가에 이르러서 용천대(勇泉帶)를 이룬다.

57) 권혁재, 『한국지리』, 법문사, 1987, 58-59쪽

는 토지의 비옥도(肥沃度), 수리 사정, 한반도와 교섭관계, 어로조건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취락입지로 최적지[58]였다.

제주도 산세의 흐름[59]으로 살펴볼 때 삼성혈이 위치한 제주시 이도1동은 제주도 북부 지역으로 제주시 조천읍에서 애월읍 까지의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제주는 위도(緯度)가 낮아 기온(氣溫)이 높으며, 바다로 둘러싸여 기온교차도 작다. 연평균 기온은 삼성혈이 위치한 제주시는 16.2℃, 서귀포시 16.2℃이다. 연평균 기온의 계절적 분포에 있어서는 여름기온은 내륙과 거의 같은 반면에 겨울기온은 훨씬 더 높아 해양성기후를 반영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한라산이 한랭한 북서계절풍(北西季節風)을 막아주기 때문에 겨울 날씨가 제주도에서도 가장 따뜻하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지리학자 김정호는 순조4년(1804년)~고종3년(1866년) 사이의 인물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제작했는데, 이 지도를 보면 제주도편에 삼성혈이 표시되어있다.

---

58) 吳洪錫, 『聚落地理學』, 教學研究社, 1989, 121쪽

59) 邊昌斗,「제주도 지명및 전설과 풍수지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7,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쪽.
한라산에서 출맥한 용은 큰두레왓으로 중심 출맥 하고 작은 두레왓으로 좌청룡을 형성하고 개미목 서부지역이 백호를 이루어 분맥하고 있다. 큰두레왓으로 중심출맥 한 주룡은 아흔아홉골, 노루생이를 거쳐 거문오름에 이르러 머물면서 상여오름으로 중심출맥하고 천마목장지역으로 청룡맥을 이루고 민오름 지역으로 백호맥을 형성한다. 또 상여오름에서 중심출맥한 주룡은 광이오름을 거쳐 신제주 서부지역의 진산인 남조순오름을 형성하고 노형초등학교 지역으로 내려와 노형동 중심지를 형성하며 다시 북쪽으로 내려 이호이동(이호동 서부) 도두1동(도두동 서부) 지역을 이룬다. 거문오름에서 갈린 청룡맥은 천마목장 ·월산 · 노형동 서부 · 내도동(외도동 동부)등을 형성하고 거문오름에서 출발한 백호맥은 민오름에 머물러 비월동(연동) 제주도청 별관 지역으로 중심 출맥하고 해태동산에 머물러 용담1동· 용담3동 다호지역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지도-1〉 1861년에 제작된 대동여지도 상의 삼성혈

3. 삼성혈의 설화

제주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孤立)되었고, 척박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기에 육지와는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는 '전설의 섬' 으로 고유문화를 보전(保全), 발전시키고 있는 곳이다. 제주 삼성혈은 신화적 문맥으로 지모신 신앙(信仰)이 반영된 화소(話素)가 나타난다. 이는 삼신인(三神人)이 솟아난 모흥혈(毛興穴)을 강신 장소가 아닌 강신의례(降神 儀禮)를 거행하던 의례장소로 보는 견해이다. 또한 삼성혈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타 지역과 달리 삼성(三姓) 개국신화[60]가 존재하였다. 이곳 삼성신화의 화소중 거인신화(巨人神話)는 제주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제주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설화의 모티브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설문대할망의 거식성(巨食性)은 비범한 능력의 특수장치로 사용된 것이다.

삼성혈에 얽혀 전해 내려오는 혼인지(婚姻池)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탐라에는 태초에 사람이 없었다. 옛 기록[61]에 이르기를 기이하게 빼어난 산이 있는데 한라산이라 한다. 이곳은 구름과 바다가 아득한 위에 완연히 있는데 그

---

60) 태고에 고을나(高乙那), 양을나(梁乙那), 부을나(夫乙那) 라고 하는 세 신이 한라산 북쪽 모흥혈(毛興穴, 오늘날 삼성혈)이라는 땅에서 솟아나와 사냥을 하며 살았다고 하였다. 이들은 벽랑국(碧浪國)에서 들어온 세 공주를 아내로 맞아 농사를 짓고 소와 말을 기르며 살면서 제주도의 성씨의 선조가 되었다고 한다. 고량부 3인의 탄생신화는 제주도가 사방이 태평양 한가운데 고립적으로 떠 있는 해양지리적 특징에서 오는 벽랑국 공주의 배를 타고 도래한 경위와 제주도가 화산섬으로 식수가 용천에서만 구할 수 있어 용천대 주변에 집단적으로 촌락이 발생했다는 자연지리적 특징을 그대로 기저적 배경으로 한 삼성혈(용천) 에서 탄생된 토착신화이다.

61) 高麗史 地理志, 瀛洲誌 등에 제주삼성혈에 대한 신화가 기록됨
原文 『高麗史地理誌』 (端宗 2년, 1454년 刊)
耽羅縣在全羅道南海中 其古記云 太初無人物 三神人從地?出(今鎭山 北麓 有穴曰 毛興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有獵荒僻 皮 衣肉食 一日見紫泥封藏木函 浮至于東海濱 就而開至 函內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 出現靑衣處女三人及諸駒犢五穀種 乃曰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比三女云 西海中嶽降神子三人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以來 宜作配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年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都 高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始播五穀且牧駒犢 日就富庶

주산(主山)인 한라산이 그의 신령한 화기를 내뿜는다. 그리고 북쪽 기슭에 있는 '모흥(毛興)'이라는 곳에 삼신인(三神人)을 동시에 탄강시켰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4300여 년 전의 일이다. 아래는 황복원대가에 수록된 삼성 혼인지에 대한 시(詩)이다.

당초 세 사람은 바로 신인이었는데	當初鼎立是神人
서로 짝지어 해 뜨는 동쪽에 와서 살았네.	伉禮來縱日出濱
오래도록 세 성씨만 서로 혼인을 한다 하니	百世婚姻只三姓
듣건대 그 남아 전하는 풍습주진과 비슷하구려.	遺風見說似朱陳[62]

먼 옛날, 삼성혈(三姓穴)에서 나온 세 신인(神人)은 황량한 벌판에서 유랑하던 중 바닷가에 떠밀려온 목재 함(木材函)을 발견한다. 이는 자줏빛 흙으로 봉해져 있었고, 그 목재함을 열었더니, 노아의 방주를 개봉한 듯, 온갖 기이한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곡의 씨앗으로부터 송아지, 망아지와 같은 짐승들, 그리고, 아리따운 세 아가씨까지 걸어 나와 세 신인은 찬탄을 금치 못한다. 이곳에 사자(使者)가 두 번 절하고 엎드려 말하기를 "나는 동해 벽량국(碧浪國)[63]의 사자올시다. 또한 삼신인이 목욕한 연못을 혼인지(婚姻池)라 부르며, 나이 차례대로 혼인을 하고 살림을 시작했다. 이곳 혼인지는 단순히 세 쌍의 남녀가 만나 목욕하고 혼례를 치렀다는, 그런 전설의 현장만은 아닐 것이다.

또한 혼인지(婚姻池)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溫坪里) 열누니, 예혼 또는 열온이라 부른다. 본래 정의현 좌면이었고, 예전에 고 · 부 · 양 세 신인이 이곳에서 세 신부를 맞아 혼례를 지냈으므로 예혼이라고 했던 것이 변하여 온화하고 태평한 곳이라는 뜻으로 온평리라고 바꾸어졌다.

지금은 별로 찾는 사람도 없는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에는 혼인지(婚姻址)라 새긴 선돌만 우뚝하니 서 있고, 이들이 목욕했다는 연못은 현재 못으로 잘 보존되어있다. 그리고 신방을 꾸몄던 굴을 신방굴(新房窟)이라 하는데, 그 안에

62) 이형상, 이상규· 오창명옮김,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221쪽.

63) 張長植,「 韓國의 風水說話 硏究 」,慶熙大學校大學院,박사학위논문,1992, 155쪽.
동해에 있다고 하는 상상의 나라

각기 세 개의 굴이 있어 현재까지 그 자취가 보존되고 있다.

<사진-2> 고량부가 벽량국 공주와 혼인했다는 혼인지

그들의 모양은 매우 크고 도량이 넓어서 인간사회에는 없는 신선의 모습이었다. 이 삼신인은 가죽옷을 입고 사냥을 하는 원시의 수렵생활을 하며 사이좋게 살았다. 삼신인(三神人)이 용출(湧出)하였다고 하여 이곳을 삼성혈(三姓穴)이라 하였고, 3개의 지혈(地穴)이 있어 이 신인(神人)들을 이름 하여 을나(乙那)라 하며 세 성씨의 시조이며 탐라국이 개국되었다. 이들의 만남과 그 이후의 생활은 고대인들이 수렵에서 농경생활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씨족(氏族) 형성의 단서를 제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다. 이곳은 1972년 8월에 지방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되었다.

연혼포(延婚浦)의 전설에 의하면 삼을나가 사냥을 하다가 '화성개'에서 물결에 떠다니는 궤짝을 발견했다. 궤짝을 열자 벽랑국의 세 공주가 나타나므로 너무 기뻐서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이리하여 '화성개' 또는 '쾌성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때 석양이 바닷물에 비쳐서 황금빛 노을이 출렁거렸고, 그런 연유로 이 바닷가를 '황루알'이라고 이름 붙였다. 또한 우마(牛馬)와 오곡(五穀)의 종자(種子)를 가지고 와서 연혼포의 해안 언덕에 내어놓으니 삼신인이 자축하여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다" 하며 기뻐하였다.

삼신인은 제물(祭物)을 정결하게 하였고, 목욕재계 하였다. 이에 하늘에 고하고 각기 세 공주와 혼인하였다. 또한 연못 옆 동굴에서 신방(新房)을 차리고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인간적 삶의 출발점이고, 농경사회로 발전하는 거주의 기초가 되었다.

삼신녀 타고 온 석함 어데서 왔나	石函當日來何處
들판에 피와 기장 뿌릴 줄 알았네	知向郊原播稷黍
세월이 흘러 주씨 · 진씨 한 마을 이루듯	歲久朱陳成一村
그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졌네.	子孫乃爾多如許[64]

그래서 자줏빛 함이 올라온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를 연혼포(延婚浦)라 하며, 지금도 세 공주가 도착할 때 함께 온 말의 발자국들이 해안가에 남아 있다. 벽랑국에서 삼신녀가 처음 당도했던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 해변에 연혼포가 위치하고 있고, 연혼포라고 쓴 돌비석이 서 있다.

<사진 3> 벽랑국 세공주가 처음 상륙한 성산읍 온평리 연혼포

삼사석(三射石)의 소재지는 제주시 화북1동 1380-1번지 도로변에 위치한다. 이곳은 1971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시도 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었다. 탐라

64) 이형상, 이상규· 오창명옮김,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228쪽.

가 개국하고 고 · 양 · 부 삼성신인(三姓神人)이 삼성혈에서 솟아났다. 그리고, 벽랑국의 세 공주를 배필로 정한 뒤 활을 쏘아 거처할 터전을 정할 때 그 화살이 꽂혔던 돌이다. 이곳은, 1735년(영조11) 제주 사람 양종창(梁宗昌)이 석각(石閣)을 만들어 보호하였다. 석각의 높이 149㎝, 앞너비 101㎝, 옆너비 67㎝ 이며, 거기에 목사 김정이 삼사석비를 세웠는데 높이 113㎝, 너비 43㎝ 이다.[65]

삼신인은 각기 정주할 생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읍을 정하기로 하고 한라산 중턱에 올라가서 거주지를 선택하는 활을 쏘아 제주를 삼분하여 제 1도와 제 2도, 제 3도로 정하였다. 이로부터 비로소 산업을 이룩하여 오곡을 심고 우마를 길러 촌락이 이루어졌으며, 자손이 번성하여 탐라국의 기초를 이룩하였다. 활은 원시채집 문화에서 사냥, 즉 생존을 의미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 활 쏜 지역을 사시장올악(射矢長兀岳)이라 하며, 활이 명중한 돌을 한데 모아 보존하니 제주시 화북경의 삼사석(三射石)이라 한다.

<사진-4> 고양부가 활을 쏘아 거처할 터전을 정할 때 화살이 꽂혔던 돌

65) 비 옆면에는 '毛興穴古矢射石留神人異蹟交暎千秋(모흥혈고시사석류신인이적교영천추)'라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 '庚午三月七日改竪(경오3월7일개수)'라고 새겼다. 1930년 고한용(高漢龍), 고대길(高大吉), 고영경(高永炅) 등이 개축하고 담장도 보수하였다.

삼성신화의 세 신인(神人)은 나이에 따라 장가들었고, 활쏘기를 통하여 거처(居處)하야할 땅을 점 쳤었다. 활쏘기는 남만(南蠻)등 다른 지역에도 많이 나타나고, 활쏘기 재주는 동명왕 신화 (東明王神話)에도 나타난다. 이들의 활쏘기 재주는 실패하면 파멸로 이어지는 시련이므로 삼성신화와는 다른 것이었다. 삼성신화에서 나타나는 활쏘기는 시련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문화영웅이라 볼 수 없었으며, 단순한 시조(始祖)에 불과하였고 문헌 정착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활을 쏘아 서열(序列)을 정하는 화소는 제주도의 당신화(堂神話)에 흔히 나오는 화소이다. 이러한 삼신인의 서열 화소는 신라의 박혁거세 · 석탈해 · 김알지의 삼인신화의 문제와도 상통하며, 삼신인이 활쏘기 경쟁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은 주몽이 비류국 송양과 재주를 겨루는 것과 비슷하다. 이 화소는 하늘의 뜻을 묻고 활로써 그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의미에서 공통[66]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 설화는 삶의 진지성을 찾아 끈질긴 저항성이 나타났으며, 천자(天子)의 지위를 이어받아 전대(前代)의 법령(法令)과 제도(制度)를 지키면서 살게 된 것이다. 천자는 지금까지 만들어온 토대를 바탕으로 하늘의 기운을 받는 일로만 생각하기에는 부족하였다. 곧, 기회를 얻어 건국의 토대를 세운 영웅은 비천한 출신이었으며, 실패를 거듭하여도 굳세게 일어나는 고조. 광무제처럼 하늘에서 인간에게 내리는 영험한 조짐이었다.

이러한 천자의 기운을 가진 성인(聖人)들을 각각 자신들의 종족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공자는 피리를 불고 난 뒤 자신이 은나라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항우는 눈동자가 두 개였기 때문에 순임금의 후예라는 사실을 알았다. 삼황오제의 선조는 황제(黃帝)이며, 황제는 성인(聖人)인 것이다. 이들은 원래부터 부귀한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대대로 제왕이 될 수 있었던

66) 고병석, 앞의 논문, 18쪽.
三神人의 身分序列의 話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三神人이 地中에서 出現할 때 長 ·次 · 三 으로 구분하여 良乙那, 高乙那, 夫乙那(高麗史地李地) 또는 高乙那, 良乙那, 夫乙那(瀛州誌)로 기록되어 있는 점과 둘째는 三神人이 所居地를 정할 때 돌을 쏘아 勇力을 시험하고 上 · 中 · 下 를 정하여 고을나가 君長이 되고, 양을나가 臣下가 되고, 부을나가 民이 되었다는 기록이다.

것이다. 이처럼 황제의 탄생에는 반드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67]이었던 것처럼, 인간은 대지에서 원초적 힘을 받고 차별성을 바탕으로 재생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으로 회귀하는 질서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라산을 내리면서 나타난 제주설화의 용맥은 흙붉은 오름으로 내려오는 일지맥과 관음사 쪽으로 내려오는 일지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한라산 개미목 동쪽으로 내려오는 용맥은 관음사로 내려오는 용맥과 들위 오름으로 내려오는 용맥으로 나눌수 있다. 관음사로 내려오는 용맥은 죽성 지역으로 내려오는 용맥과 소산봉으로 내려오는 용맥으로 구분한다. 죽성 지역으로 내린 용맥은 구남동, 고산동산을 거치고 삼성혈에 이르러 탐라국 발생지 북측인 남문로터리에 다다른다. 이는 제주시 지역의 중심맥을 이루었고 산천단으로 내린 용맥은 인다라, 아라2동으로 내린다.[68]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라산에서 흙붉은 오름으로 내린 일지맥은 삼의양 오름을 거쳐 제주대학교에 이르고 또 한 갈래는 불칸디 오름을 거쳐 살쫀장오리에 이르며 살쫀장오리에서 일지맥을 이루어 월평동을 거쳐 사라봉에 이르고 한 지맥은 용강마을을 거쳐 화북동에 이른다.

또한 제주도 아라 일동에 토적악(土赤岳;흙붉은 오름)이 있는데, '흙이 붉다'는 뜻이 아니고 '크게 빼어나서 혈지를 밝게 한다' 라는 의미이다. 이는 '크게 빼어나서 혈을 밝게 하는 오름'에서 '크게' 는 거(巨)로 표현되고 '빼어나서'는 문(文)으로 표현되며, '혈을 밝게 하는' 이란 적(赤)이 되며 오름은 악(岳)이 되어 이를 합치면 거문적악(巨門赤岳)이 되는 것이다.[69]

삼성혈 주변 지세도에서 내룡이 1승, 2승, 3승함에 따라 개장하여 1혈, 2혈, 3혈을 형성하고 있으니 바로 3인의 공주로 보인다. 내룡이 내리면서 삼승(三乘)을 하고 있으며 이 삼승이 8괘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을 볼 때 삼승은 삼신(三神)으로 보인다. 즉, 고량부 삼성(三姓)도 삼승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

---

67) 왕충,『 논형 』,동아일보사, 2016, 161쪽.

68) 邊昌斗,「제주도 지명및 전설과 풍수지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7,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7쪽.

69) 명월향토지, 명월향토지편찬위원회, 2003, 129~130쪽

서 승(乘)은 지맥이 나가는 형으로 양이며 혈(穴)은 지맥이 머무는 형으로 음이니 고대인들은 이를 조합하여 8괘를 그려냈다. 이를 통해 추측해보면 용마하도(龍馬河圖)와 상통하는 부분이다. 용마하도는 선천팔괘를 말하는데 3,500여 년 전 부족국가의 우두머리인 태호 복회씨가 하수의 호아하 유역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용마의 등에서 이상스러운 점무늬를 발견하게 된다. 이곳에서 우주만물의 생성, 소멸하는 이치인 팔괘를 그린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고구려 삼족오 사상, 삼태극 사상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또한, 삼신인과 세 공주가 짝을 이루어 앞으로 살아갈 곳을 활로 쏴 정하는데 이를 일도리, 이도리, 삼도리라 정하는바, 여기서 도(徒)는 걸음도(보행), 무리도(중야)이므로 한번, 두 번, 세 번 걷는다는 의미이며 내룡이 세 번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주시 지세도에서 보면 일승, 이승, 삼승을 의미한다. 결국 개국 신화의 골자는 내룡이 세 번 나아가 세 혈을 이룬 명당에 거주지를 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룡 셋은 삼신인으로 삼신사상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삼성혈에 나타나고 있는 지모신(地母神) 신앙은 자연의 법칙 속에 선험적(先驗的) 인식의 순응이었다. 이는 농경민족(農耕民族)의 사유(思惟)였으며, 사후(死後)세계에 갈 곳도 대지(大地)라는 한국적 문화풍토의 이차적 관념이었다. 따라서 죽음 이후의 정주공간도 특별한 대지여야 하는 것이다. 특별한 대지는 어머니의 품이며, 지모(地母)의 생명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70]에 이곳 제주 탐라현 삼성혈의, 북쪽 기슭 모흥굴은 다른 땅과 차별화된 '특별한 대지(大地)' 라는 관념과 연결되는 것이다.

즉, 삼성혈에 나타난 풍수설화는 특별한 공간의식을 만들면서 공간에 나타나는 신성성이나 차별성(差別性)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는, 재생과 회귀의 근원적 요소이며, 풍요와 생산적 명당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풍수의 개념은 '풍수설' 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한국인의 정신사적 바탕이 되었다고 여긴다. 이와 같은 "풍수설화"와의 접근은 풍수적 공간에 담긴 인간들의 관념(觀念)에 대한 관심이었다. 따라서 풍수적 명당과 주인공을 설정한 신화

70) 張長植,「 韓國의 風水說話 硏究 」,慶熙大學校, 박사학위논문,1992, 155쪽.

적 요소는 설화에서 시작되어 종교 문화적으로 발전된 것이다. 풍수설화는 동양적 사유체계의 의미화 작업과 공동체 사회의 질서화 과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삼성혈에서 바라본 풍수와 신화적 의미의 해석을 통하여, 천지인(天地人) 삼합의 원리 속에 생명탄생 체계와의 연관성, 규칙성을 찾게 되는 것이다.

Ⅲ. 삼성혈의 풍수적 해석

1. 삼성혈의 주산과 안산

풍수지리(風水地理)의 이론적(理論的) 기초는 삼신오제 사상과 음양오행(陰陽五行) 사상이며, 최초의 풍수서 청오경(靑烏經)에서 처음으로 풍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청오경에서 음양론과 사상론을 제시하면서 풍수는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풍수(風水)에는 우주론적 시각에서 바라 본 인간의 소망이 담겨 있으며, 노자의 『도덕경』에도 추상적인 우주 창생론적 논의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직접적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양기의 대표적인 하늘과 음기의 대표적인 땅이 서로 기를 합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산천초목과 세상 만물이 생겨나는데, 하늘이 저 혼자 잘났다고 하거나 땅이 저 혼자 제일이라고 한다면 이 둘이 어울려 만물을 창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만다. 둘은 서로 겸허한 자세로 상대방을 받아들인다.[71] 이러한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와 인식으로 공간을 새롭게 창조해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대인들은 하느님을 숭상(崇尙)하며 높은 산 정상에서 제사를 지냈다. 풍수는 고전적 이상과 기복적 욕망을 가진 복합적인 종교문화(宗敎文化)이고, 이러한 기복을 목적으로 삼는 술법(術法) 만은 아니라 할 것이다. 곧, 산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드는 부모와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였고, 부자조손(父子祖孫)이 산을 배경으로 농촌마을이 조성되었으며, 이 때 산의 앞쪽에 집을 지어 사는 사람들은 배산임수(背山臨水)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대(代)를 잇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여 부(富)를 추구하였다.

주산(主山)과 안산(案山)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산과 안산은 터의 기운을 좌우하기 때문에 핵심적 요소이며, 주산은 빼어나고, 바른 모습이

71) 오강남, 『도덕경』, (주)현암사, 1995, 199쪽.

며, 해 맑고 보드랍다 할 것이다. 우선 뒷산이 잇달아 이어져 들판을 가로지르고, 얼핏 높이 솟은 산 봉우리를 만난다. 지엽(枝葉)과 같은 지맥이 애워싸고 동부를 이루어 비슷하게 정부 관청으로 들어가는 듯 보인다. 주산의 형세(形勢)가 가볍지 않으며, 넉넉함이 여러 층의 집이나 높다란 궁정과도 같다 할 것이다.

혈 앞의 가깝고 작은 산이 안산이고 멀고 높은 산은 조산(朝山)이며, 조산(朝山)은 주인인 조산(祖山)과 손님인 조산(朝山)이 예(禮)를 주고받는다는 것에 의의(意義)가 있다. 따라서 조산(朝山)은 빈객(賓客)이 주인을 보는 것과 같이 유정(有情) 하여야 한다. 주산을 지아비로 안산을 아내로 비유하여 "지아비 산은 높고 엄하며 아내산은 낮게 뻗어가야[72]한다. 그 북쪽에는 포근한 어머니의 품속 같고, 남쪽에는 근엄한 아버지 얼굴 같은 한라산에 풍수적 의미의 전설 설문대할망이 있다. 설문대할망은 대혈을 맺은 오백(烏白)장군으로 내룡이 일곱 번 생하여 큰 들(漢羅) 이 낙맥 하여 오름이 생겼다.[73]

제주 방언에 큰 산(岳=악)을 일컫기를 울움(兀音=오름)이라 하였고, 산의 능선을 용이라 하였다. 용은 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 표면의 어느 곳에나 존재(存在)하는 것이다. 산맥을 용이라 부르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용을 왜 산맥이라 부르고	龍者何山脈也
산맥을 왜 용이라 이름 하는가 하면	山脈何以龍名
대개 용은 요교하고 활발하기 때문이다.	蓋因龍夭矯活潑
변화를 측정하기가 막연하고	變化莫測
갑자기 숨었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忽隱忽現
갑자기 크다가 갑자기 작아지고	忽大忽小
갑자기 동에 있다가 갑자기 서에 있고	忽東忽西
갑자기 깊은 연못 속에 숨어 있다가	忽而潛藏深淵
갑자기 하늘의 구름 위를 날아다닌다	忽而飛騰雲
갑자기 머리는 나타나고 꼬리는 나타나지 않다가	忽而現首不現尾

72) 楊筠松, 김두규 역,『疑龍經』,비봉출판사,2009, 229쪽 夫山高峻婦低去.

73) 邊昌斗,「제주도 지명및 전설과 풍수지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7,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0쪽.

갑자기 구름을 일으켜 비를 뿌린다　　忽而興雲而佈雨
이와같이 산맥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　　而山脈亦然[74]

한라산은 영암 월출산의 한 맥이 남쪽으로 행룡(行龍)해오며 해남(海南)을 지나고 남해바다 천리(千里)를 지나 제주에서 높이 1,950m 정상(頂上)으로 신생대 제 3~4기의 화산작용으로 생긴 분화구에 물이 고여 형성되고 분화벽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 600m 남북 500m가량의 타원형 백록담(白鹿潭)을 만들며 한라산이 되었다.

우뚝 솟은 태조산(太祖山)인 한라산에서 출맥(出脈)하여 삼성혈 뒤편에 이르러 행룡을 멈추고 있다. 이곳, 삼성혈의 신화는 인간적 삶이 시작되고, 농경사회로 발전하는 정주(定住)의 기초가 된 곳이다. 사방의 산이 멀리 물러나 앉아 평야를 에워싸고 있고, 산맥이 뚝 떨어져 내려와 평지세에서 물을 만나 맥이 그쳐서 들판의 중심이 되는 것이 입성가거지(入城可居誌)로 인간 삶의 공간적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75] 곧 산의 정상(頂上)은 송곳처럼 뾰족한 것이 없고, 못이 많으니 아마 평지가 솟아올라 산이 된 것 같다. 평평한 땅, 넓은 들판을 이루고 여러 물길들이 모이는 곳이 좋은데, 여기에는 청룡백호가 관통해서 달리고 있어야 하며 혈(穴) 주위를 응하고 대하는 산이 있어야하는 것이다.[76] 산은 평지보다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지세(地勢) 분석과 집터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산이 높을수록 벼락과 천둥이 많이 치는 것은 평지보다 음전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용맥(龍脈)은 지표면(地表面)에서 융기(隆起)한 고산준령(高山峻嶺) 만이

---

74) 人子須知(제2책(第二冊) 용법(龍法), 중국의 산, 대간룡(大幹龍) 맥락(脈絡) 등)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학회, (www.poongsoojiri.co.kr 검색일 2018년 2월 10일) 풍수 강의실 용세론.

75) 서유구, 안대희옮김,『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게, 2006, 111-112쪽,『林圓經濟志』,「相宅志」, 保景文化社, 1983: 主山又秀麗端正淸明嫩香者爲上 後山綿渡野忽赴高大峰巒紆回枝業結作洞府 如入官府之內 而主勢穩重豊碩如重屋高殿者次之 四山遠卻平圍 而山脈落下平地遇水卽止爲 野基者又次之最.

76)〔宋〕蔡成禹, 김두규 역,『明山論』, 비봉출판사, 2004, 102쪽.
平洋演野 衆水所聚 乃爲盡善 亦必穿龍虎 入應對 折三合 取水脈 照龍乳.

아니고 평지나 평야 가운데 돌기(突起)한 산에도 존재한다. 주산을 중심으로 살펴본 간룡법(看龍法)은 용의 흐름을 보고 산의 생기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장풍법(藏風法)은 주변의 산세가 혈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입수(入首)는 내룡(來龍)이 혈 속으로 들어가는 곳을 말하며, 곧 용(龍)의 머리가 들어가는 곳이다. 즉 삼성혈에서 바라본 입수룡(入首龍)은 횡룡입수(橫龍入首)하는 모양세이다. 횡룡입수(橫龍入首)의 경우에는 뒤를 받쳐주는 귀성(鬼星)과 낙산(樂山)은 필수적 요소로 인식한다. 귀성(鬼星)은 입수룡(入首龍)의 반대 측 주룡에 붙어 있는 작은 지각(枝脚)으로 용과 혈을 지탱해주고 주룡의 기운을 혈 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 낙산(樂山)은 횡룡입수(橫龍入首)하는 용의 뒤를 받쳐 주는 산으로 혈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혈의 허함을 보충해주며 생기를 보호하는 혈의 베개와 같은 산이다.[77] 삼성혈의 입수룡(入首龍)은 횡룡입수(橫龍入首)하고 있는데, 산지천이 삼성혈을 환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혈에서 주산과 안산의 형태를 살펴보면 평탄한 쪽이 산의 앞면이고 명당(明堂)은 산의 앞면에만 있는 것이다. 삼성혈은 앞쪽에 산이 전혀 없는 개방공지로 산맥이나 하천이 없어서 공간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해양지향성으로 해안 평탄지가 해안을 따라서 분포하는 기능 공간 유지에 적합했을 것이다. 삼성혈 개설 초기에는 진산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진산(鎭山)은 취락의 후면에 위치하여 그 취락을 진호(鎭護), 표상(表象)하는 상징성을 내포하는 산이다.[78] 삼성혈은 바닷가에 아주 멀지 않은 20-30리 정도 떨어진 제주 도읍의 중심지에 있으며, 진산(鎭山)의 정남향에 완만하고 평탄한 완사지에 입지하고 있다.

주산과 안산의 혈장(穴場)과의 관계에서 안산(案山)은 혈처(穴處)의 전면(前面)에 위치하여 귀인(貴人)이 안전(案前)에 앉아 정령(政令)을 처분하는 것과 같다. 만약 안산이 없으면 혈처 전면이 공허(空虛)하여 앞에서 오는 상

77) 이대현,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엮음,『한강학의성리학적 재발견』,역락, 2018, 248-249쪽.

78) 최창조,『 韓國의 風水思想』, 민음사, 1989, 273쪽.

충되는 살(殺)을 피할 수 없어 결혈(結穴)이 될 수 없다. 외부의 용 일천보다 안산 하나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안산으로 문필봉(文筆峰)을 선택한다 함은 선비를 배출코자하는 강학당 택지 선택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안산을 선택할 때에는 혈을 조응(照應)하는 사각(砂角)이니 단정하여야 기(氣)가 머무르며, 만약 비뚤어지고 음침하고, 높아서 혈을 누르면 불길하다. 앞에서 혈을 돌아보고 뒤에서 받쳐주는 대세(大勢)가 모여서 유정(有情)하여야 진결(眞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혈처가 높으면 안산이 멀리 있어야 좋고, 혈처가 낮으면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특히 목체 탐랑성(木體 貪狼星) · 금체 무곡성(金體 武曲星) · 토체 거문성(土體 巨門星)을 삼길성(三吉星)이라 하는바 삼길성에 해당하여야 좋다. 산봉우리가 솥뚜껑을 엎어 놓은듯한 둥근 모양의 금체(金體=吉), 무곡성(武曲星=吉)이나 좌보성(左輔星=中吉), 우필성(右弼星=中吉)에서 지각(枝脚)이 힘없이 뻗어나가면 이는 귀룡(鬼龍. 鬼星)일 것이니. 무곡론(武曲論)에 대해서『地理新法』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무릇 구성(九星)가운데,
> 탐랑은 귀(貴)를 주관하며 생기(生氣)를 얻어서 맑다.
> 무곡은 부(富)를 주관하며 왕기(旺氣)를 얻어 성(盛)하다.
> 그러므로
> 무곡은 본래 곳간과 갈무리의 별로서, 세상에서 복덕(福德), 복룡(福龍), 보요(寶曜), 등운(騰雲)이라고 일컬으며,
> 또한 인간의 수명을 주관하기도 한다.
> 포태법에서 무곡에 해당되는 임관(臨官)과 제왕(帝王)은 생명체가 갖는 힘(盛) 을 나타낸다.[79]

삼성혈은 도심의 중앙에 있고, 도시화의 영향으로 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

79) 호순신, 김두규 역해,『 地理新法』, 比峰出版社, 2001, 96쪽.
九星, 大率, 貪狼主貴, 以得生氣而淸也 .武曲主富, 以得旺氣而盛也. 故武曲本庫藏之星 , 世目 爲福德, 目爲福龍, 目爲寶曜, 目爲騰雲 ,而亦主壽.臨官帝王· 物之盛也.

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삼성혈에서 바라본 주산 · 안산은 풍수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자연의 모습을 관찰한 결과라 할 것이다. 삼성혈의 주산으로 무곡 금성체는 재물과 관련되어있고, 포근한 느낌과 경제적인 안정 속에서 아늑한 공간의 형성을 만들고 있다. 귀(貴)한 기운이 서로 보필(輔弼)하는 자리란 근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앞 . 뒤의 사각(砂角)이 혈장(穴場)을 호위(護衛)하며 주산(主山)과 안산(案山)이 각각 있는 곳이다. 1 / 25000 지도를 보면 지금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 용은 물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한라산 북쪽 오구시 오름이 소조산이 되고, 주산으로 여겨진다. 오구시 오름(188.4m)이 가장 높으며, 사산(四山)이 밖으로 둘러싸여 감싸고 있으면 '밖으로 팔풍을 감추다' 는 것으로 '안으로 오행을 감추었다'[80]는 뜻이 된다. 들위 오름이 중조산이며, 안산으로는 30.5m인 제주성지로 보인다.

80) 辛盛銀역,『錦囊經· 靑烏經』 자유문고, 2005,178-179쪽.
外로八風을 藏하고 內로五行을 秘하느니라 八方의 風이 吹를 不使라 內로 五行을 秘라함은 五氣를 藏함을 謂하니라. 又曰 四山이 外에 環繞한즉 是는 外藏八風 五氣가 內에 流通한즉 是는 內秘五行이니라.
不使八方之風吹之 內秘五行 謂藏五氣也 又曰 四山環繞於外 則是外藏八風 五氣流通於內則是內秘五行也矣

<지도-2> 1 / 25,000 제주 삼성혈

2. 삼성혈의 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산은 부자조손(父子祖孫)의 동일한 기(氣)로, 편안함에 있다. 산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드는 부모와 동일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초목의 뿌리와도 같고, 혈(穴)은 꽃이 피어있는 모습과도 같다. 꽃이 혈이라 하면, 근본이 되는 뿌리가 참되어야 하고, 근본적 유형에 따라 혈이 생긴다. 풍수지리의 목적은 땅속의 생기(生氣)를 찾는 것이며, 혈이란 인체에 있어서 경혈과 같은 것이다. 우뚝 솟은 주산과 미려(美麗)한 안산을 가진 넓은 들판에 혈을 맺는 것은 풍수의 혈론(穴論)이며, 이러한 혈의 원리는 존재론적 가치부여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혹 높은 곳에서는 평평한 곳을 취하고, 或以高取平
혹 낮은 곳에서는 볼록한 곳을 취하고, 或以低取突
혹 완만한 곳에서는 급한 곳을 취하고, 或以緩取急
혹 급한 곳에서는 완만한 곳을 취하라. 或以急取緩
더러는 주산과 객산을 보고 穴을 취하고, 或取主客
더러는 좌우를 보고 穴을 정하고, 或取左右
더러는 석맥을 보고 穴을 정하고, 或取右脈
더러는 물줄기를 보고 穴을 정하고, 或取水脈
경우에 따라서는 본래의 자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거꾸로 혈을 잡고, 或反本
부족한 곳을 메워 穴을 잡고, 或假借
적절히 더하거나 줄여서 穴을 잡고, 或乘除
돌려서 쌓고 난 뒤 혈을 잡는 등, 或回護
그 혈을 정하는 종류는 하나만 있는 것이다.[81] 其類不一

혈(穴)의 정의를 살펴볼 때, 혈은 기(氣)를 모아 마치 오목거울이 월정(月精;陰氣)을 맺고 볼록렌즈가 일정(日精;陽氣)를 모우는 것과 같다. 음양의 원기는 요철형(凹凸形)에 의하여 결정되며 양은 요(凹), 음은 철(凸)이 된다. 요(凹)는 쉽게 양기를 모으고, 철(凸)은 쉽게 음기를 모은다. 풍수의 성극법인 음래양수(陰來陽受)를 볼록렌즈(凸)와 오목(凹)한 거울에 견주고 혈(穴)은 이 볼록 렌즈 및 오목거울의 결기점(結氣點), 즉 광학의 초점을 합한 곳에서 쉽게 음양생기의 순환을 이루고 조화의 힘을 발휘하여 상서로운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혈(穴)이란 용맥(龍脈)가운데 가장 생기(生氣)가 있고 땅의 기운이 감도는 곳이며, 따라서 용맥의 마무리는 혈의 결실로 이루어진다.

혈처(穴處)에 가까워질수록 악(惡)한 기운을 털어내고 맑은 기운을 간직하여 혈처에 참된 땅의 기운을 응결케 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를 주룡이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자연의 이치로써 인위적으로 모자라는 것을 채워서 꼴을 만드는 것은 참된 혈이라 할 수 없다. 작혈(作穴)을 알리는 주룡(主龍)의 요건을 형기적(形氣的)으로 간룡(看龍)하는 근본 줄거리를 중국 송대(宋代)의

81) 蔡成禹, 김두규역, 『明山論』, 비봉출판사, 2004, 97-98쪽.

풍수지리 대가 목당(牧棠) 채발(蔡發)의 발미론(發微論)에서 설명하고 있다. 혈(穴)은 용맥(龍脈)이 조악(粗惡)한 곳에 자리 잡지 않는다. 땅의 기운이 응축되어 있고 지기(地氣)가 머물러 장풍(藏風)이 되는 고요한 곳에 결혈(結穴)하는데, 이는 동정을 잘 살피는 것이다.

풍수의 주된 목적은 실로 혈에 있다. 즉 길(吉)한 혈을 골라 생기의 융결조화를 얻고자 함이다. 용(龍)은 산줄기가 오르락, 내리락 꿈틀거리는 것이고, 땅속의 기(氣)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 멈추며, 장풍(藏風)됨은 바람을 감추는 것이다. 생기(生氣)는 물과 경계(境界)를 이루고 물은 기를 막아주어 머물면서 혈을 맺는다.「형세론」에서는 "산이 혈을 결지할 때에는 그 산의 유정함을 취할 뿐이고 그 보는 이의 마음과 뜻에 있는 것[82]이다". 라고 하였다.

혈의 정혈방법(定穴方法)을 살펴보면, 청룡(青龍)과 백호(白虎)는 혈(穴)을 논할 때 매우 중요하다. 혈은 용호(龍虎)에 의해 생기기도 하고, 물이 거슬러 올라오는 국(局)에서도 생기는데, 혈은 용호에 의하고, 청룡이 한쪽으로 뻗으면 혈은 오른쪽에 있으며, 백호(白虎)가 한쪽으로만 뻗으면 혈은 왼쪽에 있다. 청용, 백호가 높으면 혈도 높이 있고, 청용, 백호가 낮으면 혈도 낮게 맺는 것이다. 혈이 중간에 있고 청용이 혈 앞쪽을 지나고 있으면 청용을 따라야 하고, 백호가 혈 앞을 지나가면 백호를 따른다. 청용이 먼저 이르면 청용편에 있는 것이고, 백호가 먼저 이르게 되면 백호 쪽에 있다할 것이며, 청용과 백호가 나란히 있으면 혈처(穴處)는 중앙이라 할 수 있다.

곧, 생기(生氣)가 머물러 있는 곳을 혈(穴)이라 하고,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땅속에 머물러 있는 생기(生氣)를 얻어야 한다. 기가 모여 있는 곳에 시신을 매장하면, 뼈가 그 생기를 받아 황골(黃骨)로 변하여 체백(體魄)이 편안하고, 그 기운이 동질의 유전인자를 가진 자손과 감응이 된다. 또한 그 영향을 받은 자손은 번성하고 부귀를 누리게 되어 복(蔭德)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조선 유학자들의 동기감응론 인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82)『地理新法』,「 形勢論」· "山之結地 , 取其有情意而已 · · · 特在於觀其情意而已 "

〈표-1〉 조선유학자들의 동기감응론 인식비교

이름	趙 翼	李 瀷	洪大容
著書	『浦渚集』	『星湖僿說』	『湛軒書』
認識	聖人시대에 聖人이 출현하는 것은 같은 기가 통하기 때문이라 주장	磁石의 성질을 이용해 동기감응론을 입증코자 함	풍수 길지에 의한 인재 탄생론을 주장
이름	崔漢綺	宋時烈	李 穡
著書	『神氣通』	『宋子大全』	『牧隱文藁』
認識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통한다는 논리주장	同氣끼리 同聲끼리 통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서로 비슷한 氣는 서로가 서로를 찾는다는 논리
이름	崔岦	李珥	丁若鏞
著書	『簡易集』	『栗谷全書』	『經世遺表』
認識	지역의 특성에 따른 인물의 출현을 주장	자식과 부모는 하나라는 인식	禮가 아니라 하면서 동기감응론 자체를 부정

〈출처〉 박정해, 한동수, 2011, 조선유학자들의 동기감응론 인식, 96쪽

이처럼 명당은 넓고 평평하여야 하므로 경사(傾斜)진 곳에는 용사(用事)하지 말 것 이며, 물은 흐르지 않는 것 같아야 자연히 기(氣)가 모인다. 모래와 돌이 많아 건조한 땅에는 원래 혈처(穴處)가 없는 것이다. 흙이 비옥하면 혈이 있고 토박(土薄)하면 혈이 없다. 혈장(穴莊)에 원훈(圓暈)이 있는 곳은 생기(生氣)가 안으로 모이는 것이므로 진혈(眞穴)이 되고 원훈이 없으면 의심을 갖고 다시 보아야 한다. 원훈이 분명히 보이면 중심부에 정좌(正坐)가 되는 것이니 중심부에서 볼 때 배산임수(背山臨水)하면 안으로 생기가 승(乘)하고 밖으로는 당기(堂氣)에 접하며 안산을 대하고 아래로 명당을 취하며 좌우로 용호가 환포(環抱)하고 천심십도(穿心十圖)에 기울어짐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정혈(定穴)이 되고 혈 주위 청용, 백호가 보국(保局)을 만들어 혈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명당의 핵심이라고 하는 혈(穴)은 여성의 자궁(子宮)과도 같으며, 생명력(生命力)과 관계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즉, 음양(陰陽)의 결합으로 생명이

잉태(孕胎)되는 것이고 혈(穴)에서 천지인 삼합사상과 생명탄생의 원리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혈의 종류에는 와(窩), 겸(鉗), 유(乳), 돌(突) 네 가지 형상이 있는데 이를 사상(四象)이라 한다. 우리 일상에서 보통 음양(陰陽)을 나눌 때 볼록하게 돌출 된 것을 양(陽)이라고 하고, 오목하게 들어간 것을 음(陰)이라고 한다. 그런데 풍수지리에서는 그 반대로 해석[83]하고 있다. 크게 볼록한 돌혈(突穴)은 태음(太陰)이고, 약간 볼록한 유혈(乳穴)은 소음(少陰)에 해당한다. 그리고 와혈(窩穴)과 겸혈(鉗穴)의 혈심(穴心)은 약간 볼록한 미돌(微突)한 부분에 맺으며, 유혈(乳穴)과 돌혈(突穴)은 약간 미와(微窩)한 곳에 혈심(穴心)이 위치하고 있다.[84] 유혈(乳穴)은 흡사 양팔을 벌린 중간에 유방을 늘어뜨린 듯한 형태로서 수유(垂乳), 유두(乳頭)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유형(乳形)에는 반드시 선익(蟬翼)이 있어야 한다.[85] 와혈은 굽고(曲), 겸혈은 곧으며(直), 유혈은 드리우며(垂), 돌혈은 높이 솟아(聳)있는 모양이다.[86] 유혈(乳穴)이란 것은 혈형(穴形)이 여자의 유방과 같고 닭 염통이나 쓸개가 매달려 있는 것 같고 면(面)이 숙인 것과 쳐든 것 두 종류가 있다. 안산(案山)은 혈(穴)을 향하여 개면(開面) 해야 하며 낮고 가까이 있어 유정(有情)하여야 귀안(貴案)이

---

83) 風水에서는 물은 움직이니 陽이라 하고 山은 움직이지 않으니 陰이라 한다. 따라서 山이 陰이기 때문에 正常的 陽의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의 개념이 성립되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게 된다. 즉 볼록한 것은 陰이고 오목한 것은 陽이라 해석하게 된다.

84) 박정해,「朝鮮 儒敎建築의 風水的 特徵에 關한 硏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122쪽.

85) 윤갑원, 『도선 통맥 풍수』, 도서출판 미래, 2008년, 220쪽
乳穴者-穴形如乳 鷄心垂膽 面有俯仰二種 龍虎內舒暢 乳頭圓淨者吉 忌粗頑 擁腫 峻急斜曲 層稜 死硬 有長乳 短乳 大乳 小乳 雙乳 三乳 側乳 側乳者 星體不正 偏於一邊 乳畏風 兩臂紐會 方是 龍眞結 必有蟬翼
청룡(靑龍)과 백호내(白虎內)의 혈처(穴處)와는 뚜렷이 분별되고(舒暢), 유형(乳形)의 머리는 둥글고 정결해야 길(吉)하고, 거칠고 완악(頑惡)한 것과 부스럼의 종기 같고 높고 급하고 비뚤어지고 굽은 형과 층층이 모나고(稜) 뻣뻣하게 굳어서 죽은 형은 꺼리고, 장유 단유 대유 소유 쌍유 삼유 측유형이 있는데, 측유(側乳)란 것은 성체(星體)가 바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며, 유혈(乳穴)은 바람을 두려워하므로 양팔로 모아 안음으로써 바야흐로 이를 용(龍)의 진혈(眞穴)이라 한다. 유형(유형)에는 반드시 선익(蟬翼)이 있어야 한다.

86) 『地理正宗』,「山龍魚類」, 龍穴, “不出窩鉗乳突 窩曲鉗直乳垂突聳.”

며, 외산(外山)이 수려(秀麗)하고 겹겹이 막아주면 더욱 길(吉)한 것이다. 그러나 곧게 달아나고 면(面))을 돌려 무정(無情)하고, 그 형(形)이 깨지고, 뾰쪽하고, 기울고, 추한 모양 등은 흉(凶)한 것이다.『감룡경』에는 구성(九星)에 따른 혈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탐랑이 만드는 혈은 유두(乳頭)혈에서 찾아야 하고, 거문이 만드는 혈은 오목한 곳(窩)에서 찾아야 하며[87] 무곡이 만드는 혈은 차겸(釵鉗)[88]에서 찾아야 한다.

삼성혈의 주산은 혈장과 연결되었고, 혈의 특징과 형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삼성혈의 혈형은 무곡성의 원와혈(圓窩穴)을 맺는다. 이런 측면에서 고씨 양씨, 부씨 3 성이 배출된 3개의 성혈은 풍수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무곡성에서 출맥한 용이 혈을 맺을 때는 대개 산 정상이 원형이면서도 평평하여 두원면평(頭圓面平)한 현무봉을 만든다. 현무봉에서 중출로 내려온 주룡은 주로 원와혈(圓窩穴)을 결지한다. 와혈(窩穴)은 주산이 무곡(武曲) 금성체(金星體)이거나 염정(廉貞)은 커다란 종이나 가마솥을 엎어놓은 모양이다. 용이 횡룡하면서 중간 중간에 사(梭), 인(印), 월교(月皎)같은 봉우리를 만들고 있다. 입수룡보다 낮은 위치에 동그란 원을 그리며 하늘을 향하여 입을 벌리는 모습(開口穴)이다. 와혈은 새둥지나 소쿠리 속처럼 오목하게 혈이 생기는 것이고, 손바닥을 젖혀 놓으면 가운데 동그랗고 움푹한 곳이 있다 하여 장심혈(掌心穴) 이라고도 한다.[89]

---

87) 윤갑원, 『도선 통맥 풍수』, 도서출판 미래, 2008년, 218쪽
窩穴者-穴星開口 曲抱而必成 有牛角砂 如掬珠 鷄巢 燈盞 凹字 掌心 金盤 旋螺 鍋底 荷葉 面有俯仰二種 忌傾摧側裂 左右均均者爲正 左右不同者爲變 左右相交 日藏口窩 左右不交 日張口窩 開口深藏窩 開口平淺窩 開口寬闊日闊窩 開口狹小日狹窩 又 有邊窩雙窩) 와혈(窩穴)이란 혈성(穴星)이 개장(開張)한 곳에 둘러싸여 혈을 이루고 또 우각사(牛角砂:蟬翼)가 있어야 한다. 음양의 원기는 요철형에 의하여 결정되며 양은 凹, 음은 凸이 된다. 凹은 쉽게 양기를 모우고, 凸은 쉽게 음기를 모은다. 풍수의 성극법인 음래양수를 凸렌즈와 凹거울에 견주고 혈은 이 볼록 렌즈 및 오목거울의 결기점(結氣點) 즉 광학의 초점을 합한 곳에서 쉽게 음양생기의 순환을 이루고 조화의 힘을 발휘하여 상서로운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88) 『撼龍經』,「變穴編」, "貪狼作穴是乳頭, 巨門作穴窩仲來, 武曲作穴釵鉗覓."

89) 정경연, 『정통풍수지리』,평단문화사, 2003, 294쪽, 301쪽.
사(梭)는 베를 짤 때 실꾸리를 넣는 데 사용하는 북 모양이고, 인(印)은 도장모양이

『지리오결』에서 와혈은 좌우가 동그랗게 둘러싸이고 중심의 혈을 보호하며, 형태가 완전히 둘러싼 것과 노출된 것이 있다 하였다.[90]

〈사진-5〉 고량부가 나왔다는 삼성혈 내 구멍 3개

탐라국(耽羅國)의 개국에는 혈을 세 번 밀어내려 명당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삼승(三乘)의 개념이고 여기에서 고· 양· 부 삼신이 출현하였으니 이는 바로 삼신 사상이며 삼태극, 삼족오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91] 혈의 구조로 볼 때 볼록한 부분은 생기를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만큼 기를 공급해주는 곳이다. 즉 입수도두는 혈 앞에 평평해진 공간이며 순전 앞에서 기운이 끝나는 곳으로, 단단하면서 붉은 황토색이고, 좌우의 선익에서 활기찬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삼성혈은 평지혈인데 辛盛銀역, 靑烏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경(經)에 이르기를 "땅(地)에는 길한 기(氣)가 있는데 토(土)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요, 가지(支)에는 머무르는 기(氣)가 있는데 수(水)를 따라서 나란히 한다." 라고 했는데 그 방법은 세(勢)로서 하고 형(形)을 따라서 움직이고 회복하여 끝마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92] 삼신인과 세 공주가 혼인한 것

며, 월교(月皎)는 달이 떠오르는 모양이다.

90) 申坪 역주, 『地理五訣』,1993, 동학사 , 145쪽.

91) 邊昌斗, 「제주도 지명및 전설과 풍수지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7,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3쪽.

KGU

은 내룡(來龍) 셋을 말하고 세 공주는 세 혈로 보면 내룡 셋과 세 혈이 각각 배합된 것으로 보이며 활을 쏘아 살아갈 땅을 정하였다는 말은 혈 자리 모양이 활시위를 당긴 것과 같으므로 혈 자리가 형성된 명당을 찾아 살아갈 땅을 정하였다는 말로 여겨진다.[93] 이처럼 혈은 능선이 끝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입지와 공간구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혈은 천지의 결합이며, 생명을 만드는 기운이기 때문에 청용과 백호의 봉우리와 능선의 줄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삼성혈의 사격

풍수지리에도 형태(形態)이상의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이론과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아 또 이를 지리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풍수가는 토지에 대하여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신비영묘(神秘靈妙)한 실제를 인식하여 그것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길흉화복)을 논하는데[94] 풍수지리 이론의 3요소인 산(山) · 수(水) · 방위(方位)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산의 형태(形態)와 품격(品格)을 구분하여야 한다.

사격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은 기(氣)의 발원지(發源地)로서, 각각의 기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이로운지 해로운지가 그 기준이다. 사(砂)는 혈을 감싸고 있는 주변의 산세나 물길을 말하며, 사격(砂格)은 전체의 보국(保局)을 싸고 있는 산세(山勢)를 말한다. 즉 혈장(穴莊)의 좌우와 전후

---

92) 辛盛銀역,『 錦囊經·靑烏經』 자유문고, 2005, 89쪽.,
地貴平夷 土貴有支 支之所起 其隨而始 支之所終 氣隨而鐘觀支之法 必以隱隱隆隆 微妙玄通 吉在其中 經曰 地有吉氣 隨土所起 支有止氣 隨水而比 其法異勢 順形而動 回復終始 法葬其中 永吉無凶

93) 邊昌斗, 『제주도 지명및 전설과 풍수지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7,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2쪽.

94)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 을유문화사, 1954, 362~363쪽.

에 있는 모든 산을 말한다. 산(山)의 좌우, 전 · 후 사면(四面)에 있는 산을 사신사(四神砂)라고 한다. 청용은 남성적 기가 강하며, 호랑이로 분류되는 땅들은 하늘의 백호의 기운이 엉긴 것이다. 물에 사는 물고기나 파충류로 분류되는 땅들은 현무의 기운이며, 날짐승으로 분류되는 땅은 주작의 기운에 감응된 것이다. 현무(玄武)는 머리를 숙인 듯하고, 주작(朱雀)은 날으며 춤을 추는 듯하며, 청룡(靑龍)은 용이 꿈틀거리며 가는 듯이 한다.

또한 백호(白虎)는 두 무릎을 세우고 웅크린 듯[95]하며, 형세(形勢)가 이와 반대가 되면 법으로 당연히 파괴되고 죽는 것과 같다. 사격(砂格)을 분류하면, 산 정상(頂上)의 형상(形狀)을 기준으로 목성(木星) · 화성(火星) · 토성(土星) · 금성(金星) · 수성(水星)으로 분류한다. 목성사격은 나무가 곧게 솟은 형상이거나 원통형으로 솟아오른 형상을 하고 있다. 화성사격은 불꽃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암석(岩石)이 뾰쪽한 형상이며, 토성사격은 흙이나 돌로 밭을 일군 것처럼 일자(一字)모양과 평평한 대(臺)처럼 되어 있는 형상이다. 금성사격은 산의 정상 부분이 원형처럼 가마솥을 엎어놓은 듯한 형상이며, 수성사격은 파도가 움직이는 것처럼 굽이치는 형상으로 봉우리가 미미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다.

용(龍)의 행룡 과정에서 주산이나 현무봉의 고산(高山)지역에서 기복(起伏)이 심하게 행룡하는 것을 산용세(山龍勢)라 하였고, 야산(野山)에서 뱀이 기어가는 것 같은 굴곡을 이룬 능선을 평강세(平岡勢)라 하며, 평지를 기복과 굴곡의 변화 없이 땅속으로 숨어 은맥(隱脈)으로 행룡 하는 것을 평지세(平地勢)라 하였다. 용에는 직선형태(直線形態)와 곡선형태(曲線形態)의 두 가지가 있는데 직선 형태의 용은 '중심용'이라 하고 곡선적인 용은 곡선 형태에 따라

---

95) 辛盛銀역, 앞의 책, 199~123쪽.
夫葬以左爲靑龍 右爲白虎 前爲朱雀 後爲玄武 玄武垂頭 朱雀翔舞 靑用蜿蜒 白虎蹲踞 形勢反此
凡是龍類龍星結 凡是虎類虎星融 凡是水族玄武內 凡是禽形朱雀宮.
玄武垂頭 玄武本山也 垂頭山之住也 言定止之意
朱雀翔舞 謂前山來向而集 勢苦 翔舞也
靑龍蜿蜒 謂左山欲如龍之蜿蜒 而回抱之也
白虎蹲踞 謂右山欲如虎之蹲踞 而相迎之也

좌선룡(左旋龍) · 우선룡(右旋龍) · 혼합곡선용(混合曲線龍) 등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좌선룡은 주봉(主峰)에서 연결되어 내려온 용이 마치 사람의 왼쪽팔과 같이 왼쪽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곡선 방향이 변하는 것을 말하고, 우선룡이란 주봉에서 내려온 용이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곡선의 방향이 바뀌면서 연결되는 용을 말한다. 혼합곡선용은 산의 주봉에서 연결된 용이 처음에는 좌선을 한 뒤에 다시 우선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좌선과 우선의 변화(變化)를 갖고 있는 곧 'S'자 모양을 한 용을 말한다.[96]

이러한 사법(砂法)의 목적은 물(水)과 함께 용혈의 결지(結地)를 돕는 것이다. 사격(砂格)의 길(吉), 흉(凶)[97]은 먼저 혈처(穴處)를 살펴야 하는데 혈에서 가까운 것을 우선으로 한다. 용혈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보호하여야 진격(眞格)을 이루며, 용혈이 귀하면 귀한 사격이고 천하면 천한 사격이 되는 것이 사법(砂法)의 원리인 것이다. 또한 주변의 사격이 귀하여도 혈처가 형성되지 않으면 무익(無益)하며, 아름다운 사격이더라도 혈처를 배반하거나 형상이 깨지거나 험하면 흉격(凶格)이 된다. 그런데 풍수에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움직이고 있으니 이를 양(陽)이라 하고, 산은 움직이지 않으니 이를 음(陰)이라 한다. 따라서 산을 음이라 한 것은 산이 불록하면서도 불록한 것(凸)이 양이라는 양의 해석 기준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즉 불록한 것(凸)이 음이 되고 오목한 것(凹)이 양이 되는 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다.

---

96) 심재열,「풍수사상의 입지선정 영향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0, 123쪽.

97) 길산. 길사(吉山. 吉砂) 1.군왕사(君王砂). 2.어병사(御屛砂). 3.귀봉사(貴峰砂). 4.군수사(郡守砂). 5.부봉사(富峰砂). 6.문현사(文賢砂). 7.아미사(蛾眉砂). 8.문필사(文筆砂). 9.영상사(領相砂). 10.지사사(知事砂). 11.천마사와 어대사(天馬砂와 魚袋砂). 12.옥대사(玉帶砂). 13.보개사(寶蓋砂). 화개사(華蓋砂). 삼태사(三台砂). 14.선교사(仙橋砂). 15.기고사(旗鼓砂). 16.주홀사(柱笏砂). 17.옥새사(玉璽砂). 18.둔군사(屯軍砂). 19.어좌사(御座砂). 흉산. 흉사(凶山. 凶砂)
1.산산형(散山形). 2.절산형(絶山形). 3.도주형(逃走形). 4.역리형(逆理形). 5.결항형(結項形). 6.압사형(壓死形). 7.검사형(劍砂形). 8.낙사형(落砂形). 9.규봉형(窺峰形). 10.흔군형(掀裙形). 11.추악사(醜惡砂). 12.파쇄수삭사(破碎瘦削砂). 13.준급경도사(峻急傾倒砂).14.무정주사(無情走砂).15.충첨사(衝尖砂).16.단사(斷砂).17.발우사(鉢盂砂). 18.부시사(浮屍砂).

사신사의 형태인 안산과 조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산은 단아한 산으로 혈과 정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산이다. 안산은 귀인(貴人)앞에 있는 책상과도 같은데 혈 뒤에 있는 주산 즉, 현무봉이 남편이 되므로, 안산은 아내 격이다. 안산은 본신 안산과 외래 안산이 있고, 본신 안산은 주산에서 뻗어 나와 혈 앞에서 기봉 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외래 안산은 외부에서 온 산이 혈과 정면으로 조응(照應)[98]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제주의 산은 물러가듯 보이나, 도리어 우뚝 서 있고 겉을 바라보면 둥글둥글해서 높고 험악해 보이지 않는다. 제주는 지역적 특성상 바람을 막아야 할 사격(砂格) 즉, 전체의 보국(保局)을 이루는 산세(山勢)가 필요한 곳에 삶의 터전을 만들었던 것이다.

제주 삼성혈의 용맥의 흐름도를 1 / 5000 지도에서 살펴보면 한라산이 태조산이며, 소조산은 오구시 오름에서 시작되었으며, 들위 오름이 중조산에 해당된다. 좌청룡은 57.8m로 광양성당이 해당되며 낙산으로는 삼성초교 52.7m이다 우백호는 신산공원에 위치하며 55.3m이다.

98) 정경연, 앞의 책, 447쪽.

〈지도-3〉 1 / 5000 제주 삼성혈

4. 삼성혈의 물

물은 생명(生命)을 가지는 모든 개체(個體)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생명 유지의 요소(要素)이다. 땅에서의 물은 매우 중요하며, 물이 없음은 생명체가 자랄 수 없는 척박(瘠薄)한 땅으로 버려지게 된다. 그러나 물을 머금은 땅은 모든 생명체의 살아가는 원천(源泉)이 된다. 땅과 물의 어우러짐은 모든 생명체의 기(氣)를 왕성(旺盛)케 하는 훌륭한 조합이다. 풍수에서 산은 인정(人丁)을 관장하고, 물은 재물(財物)을 관장한다고 한다. 산은 정(靜)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음(陰)이라 하고, 물은 흘러 움직이므로 양(陽)이라 하며, 이 산, 물(水)은 생명체를 이루는 근본적 요소이다.

산맥의 기가 흐르다가 물을 만나면 기가 멈추어 응결(凝結)하여 생기(生氣)가 된다. 풍수는 집단적 풍수에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기(氣)는 움직여서 행

(行)함이요, 멈추어서 그치는(止) 것이고, 또한 모여서 취(聚)함이며, 흩어지는(散)것인데 이를 기의 행지취산(行止聚散)이라 하는바, 이러한 생기가 응결된 혈장(穴場)은 산진수회(山盡水回) 하여야 한다. 즉 산이 끝나는 곳에 물이 궁체(弓體)로 휘감아 돌고 청용백호(靑龍白虎)가 환포장풍(環抱藏風) 하여 생기(生氣)의 누설(漏泄)을 막고, 외부로부터의 흉살(凶殺)을 막아, 보국(保局) 내에 혈(穴)이 응결되어 혈장을 만들게 된다.

몸의 형체인 산과 혈, 맥을 이룬 물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며, 혈을 찾으려면 반드시 물을 보아야 한다. 또한 내룡에서 높은 용맥은 음맥(陰脈)이라 하고 낮은 용맥을 양맥(陽脈)이라 하며, 풍수 현장에서 양래음수(陽來陰受)와 음래양수(陰來陽受)는 서로 짝이 된다. 인접한 두 행은 서로 낳기도 하는 상생관계이고 하나 건너 두 행은 서로 이기기도 하는 상극관계이다.[99] 풍수지리설에서는 물이 있는 곳에 산이 있으며, 땅의 높이가 한 치면 산이 되고 (一寸高爲山) 한 치 낮으면 물로 인정 된다. (一寸低爲水) 따라서 높은 곳은 용이고 낮은 곳은 물이라 할 수 있다. 약간의 높고 낮음이 있으면 물과 용이 있다고 한다. 즉, '산이 시작되는 곳을 알려면 물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야 하고 용이 끝나는 곳을 알려면 물이 머무르는 곳을 살피라' 하였다. 물이 있는 곳에 산이 있으며, 땅이 돌기하면 용이 되고, 땅이 낮으면 물로 인정된다. 높은 곳은 용이요, 낮은 곳은 물로 보므로 지표에 약간의 높낮이가 있으면 물과 용이 있다고 한다.

제주도에서의 물의 형태 및 길흉을 살펴보면, 제주도의 수계(水系)는 한라산을 정점으로 사방으로 수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과 북 사면(斜面)은 동과 서, 사면(斜面)에 비하여 경사가 매우 급하다. 동과 서는 사면(斜面)에 길고, 넓은 용암대지가 발달되어 있으며, 수계의 발달이 빈약(貧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하천들은 남과 북, 사면(斜面)이 발달하여 남류(南流) 또는 북류(北流)하고 있다. 물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궁수라고 하는데, 물은 활의 모양으

99) 南基顯 역주,『春秋繁露』, 자유문고, 2005, 388쪽.「五行相生 · "天地之氣 , 合而 爲一 , 分爲陰陽 , 判爲 四時 , 列爲五行 , 行者行也 , 其行不同 , 故謂之五行 , 五行者 , 五官也 , 比相生 而間相勝也 ."

로 굽이굽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물은 반드시 산맥의 좌향(坐向)과 음양이치에 합치되어야 한다. 또 꾸불꾸불하게, 길고 멀게 흘러드는 것이 좋고, 일직선으로 활을 쏘는듯한 곳은 좋지 못하다[100]

이와같이 풍수지리에서 길지(吉地)란 산(龍)이 끝나는 곳에 물이 휘감아 돌고 청룡백호가 좌우를 둘러싸, 지기(地氣)가 밖으로 흘러 나감을 막아주고, 외부로부터 오는 흉살(凶殺)을 방어하여, 맥(脈)이 응결된 혈장(穴莊)이 형성된 곳을 말한다. 이는 평평한 지형에 물이 모이고 청용과 백호가 환포하고 또한 주산이 있어 뒤를 받쳐주고 안산과 조산(朝山)이 응대하여 혈을 맺기 위한 기를 호종(護從)하며 따라온 원진수(元辰水)가 상분하합(上分下合)하는 원리까지 제시하고 있다.[101]

경(經)에 이르기를 "땅(地)에는 길한 기(氣)가 있는데 토(土)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요, 가지(支)에는 머무르는 기(氣)가 있는데 수(水)를 따라서 나란히 한다."라고 했는데 그 방법은 세(勢)로서 하고 형(形)을 따라서 움직여서 회복하여 끝마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102] 하였다. 『朝鮮王朝實錄』에는 길지의 조건을 용(龍) · 혈(穴) · 사(砂) · 수(水)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에서 길지의 조건으로 "水脈이 屈谷하여 물이 깊고 맑으며 휘돌아 굽이쳐 흐르되 오는 데에 그 근원이 안 보이고 가는 데에 그 흐르는 곳이 안 보여서 마땅히 들어올 데에 들어오고 마땅히 나갈 데에 나가는 곳이 길한 땅[103]이라고 하였다.

용(龍)은 앞면이 생기가 있어 집터 선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좌선룡(左旋龍)은 용(龍)의 입장에서 보면 우측이 앞면, 좌측이 뒷면이다. 내룡이 좌선룡 인지 우선룡 인지 여부에 따라 득수(得水) 하는 지점이 결정되는 것이

---

100) 李重煥, 정무영 옮김, 『택리지』,(주) 을유문화사, 1993, 135쪽.

101) 박정해, 「朝鮮 儒敎建築의 風水的 特徵에 關한 硏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119쪽.

102) 辛盛銀역, 『 錦囊經·靑烏經』 자유문고, 2005,89쪽.,
地貴平夷 土貴有支 支之所起 其隨而始 支之所終 氣隨而鐘觀支之法 必以隱隱隆隆 微妙玄通 吉在其中 經曰 地有吉氣 隨土所起 支有止氣 隨水而比 其法異勢 順形而動 回復終始 法葬其中 永吉無凶

103) 『世宗實錄』 23년 8월25일 (己丑) 최종기사

다. 좋은 땅을 찾음에 있어 용을 살피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 수구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수구가 빗장처럼 닫혀있으면 기맥(氣脈)이 온전하게 보존된다. 모름지기 이 수구 양쪽에 지각(枝脚)이 서로 이어져 수구를 완벽하게 닫아주어야 한다.104)

胡舜申의『地理新法』에서는 산과 물의 음양을 구분하였고, 물은 양으로서 변화를 주관하기 때문에, 길흉화복의 빠름은 물에서 비롯됨을 말하고 있다. 우선 물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 득수(得水)와 파구(破口)에 대한 검토를 한다. 그리고 물이 시작되고 있는 득수처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곳, 파구처를 검토해야 한다. 호순신(胡舜申)의『地理新法』의 핵심은 물은 좋은 방향에서 들어오고 나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혈은 능선이 끝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입지와 공간구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은 반드시 산맥의 좌향(坐向)과 음양이치에 합치되어야 한다. 산세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수형(水形)이 움직여 끝이

---

104) 양균송, 김두규 역해,『감룡경・의룡경』,비봉출파사, 2009, 334쪽.
凡欲尋地何處先 龍爲第一非虛傳 第二更要看水口 水口關闌氣脈全 大山峽裡關最緊 須是兩 邊脚相連 關闌有情方是好. 若是虛反亦徒然
貪狼은 포태법에서 養과 長生의 두 자리에 居하고,
무곡은 臨官과 帝王의 두 자리에 居한다.
그러므로 물은 흘러들어 오는 것이 좋다.
만약 貪狼水와 武曲水가 흘러나가는 방향에 있다면, 生하는 기운과
旺盛한 기운을 부딪쳐서 없어지게 할 것이다.
文曲은 포태법상 沐浴과 冠帶 두 자리에 居하고,
廉貞은 病과 死 두 자리에 거하고,
祿存은 胎와 絶 두 단계에 居한다.
그러므로 文曲水, 廉貞水, 祿存水는 마땅히 그 흘러나가는 방향에 있어 야 한다.
만약 文曲水, 廉貞水, 그리고 祿存水가 들어오는 방향에 있으면, 背反의 氣와 사나운 나쁜 氣가 따라온다.
거문은 포태법상 衰에 居하고, 左輔와 右弼은 巨門의 좌우에서 보좌한다.
이것은 만물이 출입하는 문이다.
그러므로 巨門水는 물이 흘러들어오는 방향과 가는 방향 어느 곳에 있어도 좋다.
破軍은 포태법상 墓에 居하는데
이는 갈무리하는 땅이다.
그러므로 破軍水는 得水와 水口방위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안 된다.
그 이치는 모두 이와 같이 상고 할 수 있다.

처음과 같이 맞잡는 것은 물의 흐름에도 멈춤이 반드시 존재함을 말한다. 용맥(龍脈)의 가지에는 기가 흐르는 도중 멈추어 있고, 이것은 수맥과 같이 가는 것을 말한다.

『地理五訣』에서는 물의 형상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오성수(五星水)라 하였는데, 금성수(金星水), 목성수(木星水), 수성수(水星水), 화성수(火星水), 토성수(土星水)가 있다. 금성수(金星水)는 "금성형(金星形)의 물(水)로서 가장 귀하다. 부귀쌍전(富貴雙全)하고 세상의 존경을 받고 충효현량하며 의로운 인물과 좋은 사내아이가 난다". 목성수(木星水)는 "물(水)이 성문(城門)처럼 되어있다. 나무토막을 앞에 가로로 놓은 것처럼 곧고 길게 흐른다. 용직(龍直)하면 귀(貴)함은 있으나 부(富)함은 말하기 어렵다. 성품이 곧고 강한 자손이 대대로 이어진다". 수성수(水星水)는 "총명하고 수려함이 어디에 있었던가! 물(水)이 얽히어 성(城)을 이루고 굽이굽이 굽어서 지나가면 돈이 남아돌고 의식이 넉넉해진다. 용진(龍眞)하면 권세를 잡고 벼슬한다". 화성수(火星水)는 "화성(火星)으로 성문(城門)을 만들면 크게 상서롭지 못하다. 인생이 오만하고 강폭하다. 혈이 튼실하여 둥글면 번개같이 성공하나 한번 패하면 잿더미같이 되리라". 토성수(土星水)는 "물(水)이 성문을 만든다. 그 모양이 토성으로 단정하여 기울어지지 않으면 인정(人丁)과 부귀(富貴)를 겸하고 믿음이 강하며 대대로 이름을 얻는다".[105]

제주 삼성혈의 지반이 물이 잘 빠지는 다공질 현무암 계통이다. 현무암은 투수성이 크고, 하천은 일반적으로 비가 오고 나서 수 시간이 지나면 하도만 남는 무수천(無水泉) 즉, 물이 없는 건천(乾川)이 대다수이다. 탐라국 개국지인 명당을 생하면서 내리는 하천이란 의미로 생각하는 압내(南水閣川)는 다음

105) 신평 역,『地理五訣』, 동학사, 2008, 238쪽.
趙九峰,『地理五訣』, 福省集新當藏板 武陵出版 有限公司 2007년, 279頁 金城之水最 爲奇富貴雙全世所稀祇 父忠君 人且義人 人俱歎好男兒.
279 頁: 水作城門 怎唉木當前橫過直而長 龍眞出貴難言富 性直多剛世 代强.
239쪽.280頁: 聰明秀麗是如何 水繞爲城曲曲過 家有餘金衣食裕龍直 尤易 擢 高科.
火作城門大不祥出 人性倣更强梁饉君 穴的如雷發一敗如 灰共惋像.
240쪽. 281頁: 水繞城門 似土星端方嚴重不斜傾 出人富厚兼多信 世世君家有令名.

과 같다.

> 압내(南水閣川)는 제주시 이도 일동에 있는데 남수각이 있어서 '남수각천'이라 불리어지나 '압내'란 말은 '지맥의 이름(至)이 밝고 강(岡)이 끝나는 곳에 있는 하천' 이라는 의미이다.[106]

삼성혈의 물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물과 관련된 전설로는 지장새미 전설이 있다. 지장새미 전설에 의하면 제주도는 장수가 태어날 수 있는 혈맥을 갖고 있는 섬이었고, 중국의 진시황이 혈맥을 끊으려 호종단을 보냈다. 호종단이 지장새미에 왔을 때 할머니가 홀연히 나타나서 밭을 갈고 있는 농부에게 숨겨달라고 요청하였다. 농부는 할머니를 소길마 밑 물사발에 숨겨주었다. 지장새미를 찾지 못한 호종단은 차귀도 앞에서 불귀의 객(客)이 되었다는 전설이다.

이처럼 제주도에 혈맥이 있다는 것은 명당이 있는 것이고, 사방으로 뻗어나간 용맥은 많은 혈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삼성혈의 입지는 현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심지에 있다. 큰 산과 큰 강이 장풍득수의 국세를 이루며 사통팔방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수도의 특성상 산맥과 강이 큰 보국을 이루고 있다. 이는 도읍풍수의 중심성, 중립성, 접근성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들어오는 물은 보여야 하며 나가는 물은 보이지 않아야 하는 호순신(胡舜申),『地理新法』의 이론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와같이 제주 삼성혈의 물은 해발 500m 부근에서 완전히 지하로 스며들어 천변을 따라 복류(伏流)하고 있다. 또한 기타 빗물이 들어간 지하수는 용암층의 경사를 따라 복류하여 해안가에 이르러서 용천대(涌泉帶)를 이룬다. 이 용천(涌泉)이 분포하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취락이 집촌 형태로 입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 삼성혈의 물은 좌선룡을 하고 있고, 좌선룡은 주봉(主峰)에서 연결되어 내려온 용이 마치 사람의 왼쪽팔과 같이 왼쪽에서 시작해 오른쪽으

106) 邊昌斗, 『제주도 지명및 전설과 풍수지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7,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7쪽.

KGU

로 곡선 방향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5. 삼성혈의 좌향

풍수지리에서 형세론(形勢論)과 좌향론(向法論)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향(向)을 선택하여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터를 찾는 것이다. 풍수지리에서 방위는 근원적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공간의식의 한 형태로써, 이를 나경(羅經), 일명 패철(佩鐵)로써 하며, 이 패철은 중국의 황제씨(黃帝氏)가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 사용하였고 하륜에 의해 소개되었다. 패철은 청나라 지리학자 매곡천이 제작한 강회윤도에 근거하고 있다. 용, 혈, 사, 수, 향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여 길흉(吉凶)의 방위를 판별하는 기구이다. 패철은 구궁도의 원리(包羅萬象 經倫天地)이며, 천간과 지지가 하나씩 짝을 이루어 24방위를 이루고 있다. 패철의 좌향(坐向)은 인간들의 생활영역에서 농업 관련성이 있다.

또한 24방위는 농사의 24절기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좌향이 인간들의 생활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부분이다. 좌향이란 사람이나 집터가 남북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패철은 360도 원주(圓柱)를 24방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한 방위를 15도(度)씩 구분해서 24방위로 나타낸다. 24방위 글자는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로 이루어졌고 천간은 하늘의 기운(氣運)이고, 지지는 땅의 기운이다.[107]

풍수지리는 산과 물의 자연적 기운(氣運)인 지형과 지세를 찾는 음택풍수와, 인위적 기운(氣運)인 건물내부의 규모(規模), 형태(形態)나 배치(配置), 방위(方位) 등과, 외부적 요인으로 도로, 주변 건물과의 관계성, 건축물의 재료선택과 색상의 느낌, 실내 공간에서 형태와 방위 등에 따른 양택풍수로 분류된다. 풍수에서 좌향(坐向)을 설명할 당시 유학계에서 유행하던 음양의 리

107) 邊昌斗, 앞의 논문, 95-96쪽.

KGU

(理)가 기(氣)를 규정한다는 주자(朱子)의 우주관을 풍수법술에 받아들여 음양의 리는 방위이며 방위가 풍수를 결정한다고 보았다.[108]

이처럼 풍수에서 좌향의 의미를 볼 때, 방위는 인간에 의해서 설정된 인식양태이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양태에 의해서 공간은 실제적 경험내용으로 수용[109]되며 건축물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향(向)은 중요한 요소이다. 제주 삼성혈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향제례 하고 중앙에 있는 왕에게 충성을 하겠다는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곧 제주 삼성혈은 용맥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작용하였다.

좌향론(坐向論)을 중심으로 한 방위법은 중국 송나라 호순신(胡瞬申)에 이르러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조선중기에는『地理新法』을 사용하여 좌향(坐向)을 결정하였고, 지리신법(地理新法)은 구성(九星)과 연관성이 있는 향법(向法)이며 대오행(大五行)으로 입수룡(入首龍)을 분류하였다. 지리신법의 좌, 향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2> 주산 방위를 측정하여 음양 구분

양	팔괘방위	乾・坤・艮・巽・子・午・卯・酉
음	천간지지방위	甲·乙·丙·丁·庚·申·壬·癸·丑·寅·辰·巳·未·辛·戌·亥

「지리신법」에서는, 음양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음양은 순수한 주산(主山)의 방위를 측정하여 구분하며 좌향의 결정(決定)에 있어서 주산(主山) 순응형(順應形)은 주산에서 혈처로 연결된 것이다. 호순신「지리신법」은, 향법(向法)에서 좋은 땅의 기운을 받고자 하는 이기론이며, 용, 혈, 사, 수, 향을 조화시켜 취길피흉하는 법칙이다. 좌향의 길흉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좌향을

108) 이몽일,『 韓國風水思想史』, 명보문화사, 1991, 19쪽.
109) 김추윤, 南上方位考, 신흥대학교 논문집, 제25집, 2002, 109쪽.

대오행으로 구분한 후, 육친의 관계를 검토하여 길흉을 논해야 한다.

〈표-3〉 대오행을 배속시킨다.(홍범오행활용)

대오행	24방위의 배속
목	艮・卯・巳
화	乙・丙・午・壬
토	未・坤・庚・癸・丑
금	丁・酉・乾・亥
수	子·寅·甲·辰·巽·辛·申·戌

〈표-4〉오행의 국에 따라 포태법을 순환시킬 기준방위와 포태 시작점

포태법 순환방위	木	火	土・水	金
陽局은 좌선(左旋:시계방향)	申	亥	巳	寅
陰局은 우선(右旋:반시계방향)	酉	子	午	卯

다음은 제주 삼성혈의 좌향을 호순신 지리신법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좌계향(丁坐癸向)으로 북향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1단계인 주산의 방위는 보성시장 귀성에 광양성당이 낙산으로 평지혈에 횡룡입수를 하고 있다. 산줄기가 최종으로 들어오는 주산을 방위로 측정한 음양의 구분으로 보면, 입수룡은 미(未)룡이며 천간지지방위로 볼 때 음(陰)을 나타낸다. 오산도식과 수구처를 비교하여 길흉을 판단하는데 음국의 길흉일람표를 참고하면 된다.

호순신의 술법에서 토국에서 득수처 진(辰)은 포태법으로 양(養)이며 구성으로 탐랑(貪狼)이다. 파구처 癸는 포태로 임관(臨官)에 해당하며, 구성으로는 무곡(武曲)으로 길(吉)하다 할 수 있다. 즉, 호순신의 부합여부를 살펴볼 때 길(吉)한 것으로 판별된다.

<표-5> 호순신 지리신법 적용

구분	입수룡	입수룡,대오행	좌향	득수				파구				부합여부
					포태	구성	길흉		포태	구성	길흉	
삼성혈	未	토(土)	丁坐癸向		양養	탐랑貪狼	길吉		임관任官	무곡武曲	길吉	o

또한, 포태법에는 88향법이 대표적이며 팔십팔향법(八十八向法)은 당나라 구빈(救貧) 양균송(楊筠松)의《청낭경靑囊經》에서 비롯되었다. 88향법은 “의수입향(依水立向)이면 당변살위관(倘變煞爲官)”이라 하였고 이는 물에 의지하여 향을 세우면 문득 살이 변하여 벼슬이 된다고까지 신봉하고 추종하였다.[110] 팔십팔향법의 기본적 원칙[111]이 있다. 12포태 궁위의 득수와 파구처에 대한

110) 정경연,『정통풍수지리』, 평단, 2008, 636쪽.
구빈(救貧): 88향법으로 불쌍한 백성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해 주었다는 양균송의 별호

111) 위의 책, 637-640쪽.
1) 나경패철 24방위를 12쌍산(雙山)배합으로 운용한다.
2) 파구(破口)를 중심으로 사국(四局)을 결정한다.
3) 향(向)을 기준으로 국(局)을 정할 때는 삼합오행(三合五行)으로 한다.
4) 득수(得水)한 물이 혈의 향과 음양교배(陰陽交配)하는 물을 기준한다.
5) 좌선룡(左旋龍)에 우선수(右旋水), 우선룡(右旋龍)에 좌선수(左旋水)가 원칙이지만 지나친 제약을 받지 말라
6) 내파(內破)가 우선이고, 외파(外破)는 차선이다.
7) 파구(破口)는 혈 앞을 지나는 물이 최종적으로 보국을 빠져나가는 곳이다.

기본적인 길흉화복[112]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수룡은 삼성혈 뒤편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입수룡(入首龍)은 사람으로 치면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좌향(坐向)을 정할 때는 입수룡의 흐름에 순응하는 좌향 선택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좌향 선택법(坐向選擇法)이다.[113] 의수입향(依水入向) 즉 물을 보고 향을 결정하는 88향법을 쓸 때는 4층 지반정침 대신 8층 천반봉침(흔히 외반봉침이라고 함)으로 좌향을 본다. 이는 물을 보고 향을 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4층으로 향을 결정한다면 8층과는 7.5도 차이가 생겨 정확한 물의 기운을 얻을 수 없다.[114]

또한 우뚝 솟은 산을 태조, 중조, 소조와 같은 조산(祖山)으로 삼고, 머리를 내민 산, 곧 입수(入首)를 기준으로 하여 24산을 나누어 60향을 만드는데, 甲, 丙, 戊, 庚, 壬, 乙, 己(辛), 丁, 癸 십자로 그것을 정한다.[115] 형세론(形勢論)에 의한 방법에는 입수룡의 흐름에 순응하는 주산 순응형과 입수룡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더라도 좌우로 한 눈금 범위 안에서 아름다운 형상의 안산을 선택한 안산 중시형(案山重視形) 그리고 입수룡(入首龍)의 흐름에 순응하면서도 특히 아름다운 안산을 선택한 주 · 안산 혼합형(主· 案山 混合形)으로 구분

---

8) 좌향을 결정할 때는 외반(外盤)으로 한다.

112) 위의 책, 640-643쪽.
1) 절태수(絶胎水)- 득수하면 흉하나 파구되면 높은 벼슬에 오른다.
2) 양생수(養生水)- 득수하면 부귀하나, 파구되면 단명 절손된다.
3) 목욕수(沐浴水)- 득수하면 패가망신하고 파구되면 풍류로 부귀를 얻는다.
4) 관대수(冠帶水)- 득수하면 총명한 자손이 나오고, 파구되면 과부와 고아가 난다.
5) 임관수(臨官水)- 득수하면 소년등과하여 고관에 오르나, 파구되면 총명한 자손이 먼저 죽는다.
6) 제왕수(帝王水)- 득수하면 재물이 풍성하나, 파구되면 하루아침에 망한다.
7) 쇠방수(衰方水)- 득수나 파구 모두 길한 것으로 부귀가 축적된 가운데 안정된 생활을 한다.
8) 병사수(病死水)- 득수나 파구 모두 흉한 것으로 전사하거나 자살한다.
9) 묘수(墓水)- 득수하면 집안이 망하고 파구되면 번창한다.

113) 박정해,「朝鮮 儒敎建築의 風水的 特徵에 關한 硏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90쪽.

114) 정경연, 『정통풍수지리』,평단문화사, 2003, 163쪽.

115) 蔡成禹 김두규역,『明山論』,비봉출판사, 2004,,111-112

할 수 있다.[116]

입수란 산의 모습이 용으로 형상화된 것이며 용의 머리가 어느 쪽을 향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좌향은 주산 · 안산의 방향을 알아보는 것이며, 득수와 파구는 물이 흘러오는 곳과 나가는 곳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산 · 수의 방위가 매우 중요함을 나타낸다. 즉, 좌선(左旋)과 우선(右旋)은 포태법의 순환방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88향법으로 살펴보면, 계향(癸向), 계파(癸破)이며, 88향법으로 좋은 방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호순신은 물이 흘러오고 나가는 형세(形勢)가 중요하지 않으며, 방위(方位)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무릇 좌(坐)가 있어야 향(向)이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건(乾)산과 해(亥)산의 경우 좌(坐)가 임(壬)이면 그 앞 향(向)은 반드시 병(丙)이 된다.[117]

> 경우에 따라서 가로로 뻗어 있을 때에는 곧음을 취하고,
> 혹 지나치게 곧은 곳에서는 가로를 취하고,
> 혹 기울어진 곳에서는 곧바른 곳을 취하고,
> 혹 곧바른 곳에서는 기울어진 곳을 취하여
> 물이 흘러오는 곳(天門)과 물이 흘러나가는 곳(地戶)이 서로 적절
> 한 관계를 이루게 해야 하고,
> 물이 산과 함께 떠나가게 하거나,
> 산이 물과 함께 달아나게 해서는 안 된다.
> 그러한 연후에야 향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118]

산은 움직이지 않으므로 음이라 하고, 물은 움직이므로 양이라 한다. 따라서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어, 즉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생기(生氣)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氣)는 용을 따라 흐르다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

---

116) 박정해, 위의 논문, 317쪽.

117) 胡舜申, 김두규 역,『地理新法』, 비봉출판사, 2005, 216쪽.
夫有坐乃有向. 如乾亥山坐壬, 則前必向丙 ,猶謂針爲指男 ,不知鐵北方物 ,又礪 以磁石之母, 其實性必指北 ,指北所以前指南也..

118) 蔡成禹, 김두규역, 앞의 책, 108-109쪽.
或以橫取直, 或以直取橫, 或以斜取正, 或以正取斜, 使天文地戶相對, 不與山俱去, 不與水俱走, 然後爲得.

을 만나면 멈추는데 이런 기를 모아 흩어지지 않게 하고 멈추게 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풍수라고 한다. 다시 말해 기가 흩어지지 않게 바람 부는 일이 없어야 하고, 기가 멈추게 하기 위해서 물을 만나 기(氣)를 멈추게 해야 한다.명당을 찾아 물과 바람을 피하고 양지바른 생토에 조상을 안장하여 영혼이 편안하게 영면(永眠)토록 한다면 그것이 곧 후손이 즐겁고 그리고 효(孝)가 되는 것이다. 풍수명당을 찾는 우리나라는 자기고장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풍수사상이 중요한 의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Ⅳ. 삼성혈의 설화에 적용된 원리와 이해

1. 삼성혈의 설화에 반영된 풍수원리

요하네스 페르는 언어학자 소쉬르의 강의록에 있는,『언어학과 기호학 사이』를 살펴보면, “단어들의 순환이나 현존하는 언어들의 복수성, 또는 시·공간 속에서의 끊임없는 변화와, 그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체계로서의”, “언어”를 생각하려는 사람은 “언어”의 정의 속에 이미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119]『강의』에서 “부차적인 측면”으로 언급된 “지리적 다양성”이 갖는 “일반적 현상”은 단지 시간만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 속에서 언어의 움직임이란 절대적 원리”, 즉 “운명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온갖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움직임과 관련되어있다.[120]라고 기술하고 있다.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등 학문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회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한 형태로써 유배형이 있는바, 특 중죄일수록 유배지까지의 거리가 먼데 특히 바다가 가로막은 섬은 절망감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멀찍이 격리된 장소와 달라진 풍토 외에도 신체적 활동까지 극히 제약하는 위리안치(圍籬安置)의 형벌은 절망감을 배가(倍加) 했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유배지에 부정적 인상을 갖게 된다.[121] 동아시아는 엄청난 거리와 가공할 만한 산맥과 사막들에 의해 다른 문명권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특유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게 되었으며, 제주의 자연환경에는 땅·사람·말이 있었다.

제주도는 척박한 토지 조건과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입지(立地), 본토와 멀

119) 요하네스 페르,『 언어학과 기호학 사이』,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2년, 117쪽.
120) 요하네스 페르, 위의 책, 97쪽.
121) 정무영, 『동양문화사』 (상) , 을유문화사, 1991, 3쪽.

리 떨어진 지리적 조건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한 지리적 제약이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극심했던 곳이 되기도 하였다. 제주인들은 초월적인 힘, 무속적 생활태도를 지니게 되었고, 자연과 힘든 싸움을 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인의 삶의 모습은 강한 의지로 대항,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념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나타난 제주설화의 특징인 거식성(巨食性)은 비범한 능력의 특수 장치로 사용되었고, 식성의 문제가 가지는 설화 주인공의 뛰어난 능력으로 현실적 욕망이 거식이라는 화소로 나타난[122] 설화적 상상력의 모티브로 작용하였다.

제주설화의 설문대할망은 제주섬의 창조신으로 치마폭에 흙을 퍼 담아 제주와 한라산을 만들었다. 혼돈의 세상 거대한 여신이 창조신으로 등장함은 제주설화의 한 특징이라고 본다. 다른 지역보다 여성의 역할이 컸던 제주의 상황도 일부분 반영된 것이리라 여겨진다. 물질(潛水)을 비롯해 생계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해야 했던 제주 여성들이었고, 이러한 여성들의 활동력에서 거대한 여신이 등장하는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할 것이다. 제주의 지형적 특징 그리고 설화 향유자의 반인 여성들의 소망이 투영된 까닭일 것이다.

이러한 거인신화에 나타난 거식성(巨食性)의 의미를 살펴보면, 설문대할망은 거인신격을 가진 지형(地形)을 창조하는 능력을 지닌 신화적 존재이지만,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다. 제주도 사람들의 육지를 지향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절해고도라는 현실에 대한 한계의식이 설화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다.[123] 설문대할망은 신화 · 전설 · 민담의 제 요소를 갖추고 문화영웅적 면모를 띠고 있으며, 본토의 거녀설화보다 창조성이 뚜렷하다.[124] 이는, 지기(地)의 맥을 누르는, 파괴적인 강화도 마귀할멈(「大系」1-7 ‘지석묘와 마귀 할멈’)에 비하면 그 성격이 뚜렷해진다. 명주 한 동이 모자라자 할망은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를 놓다 말았는데, 이는 다

122) 김헌선, 앞의 논문, 48쪽.

123) 김헌선, 앞의 논문, 40쪽. 재인용 <제주 사람이 청나라 황제가 되었던 사연>, <<제주설화집성>>이라는 전설이 있다.

124) 허춘 ,『제주 설화 연구』, 경인문화사, 2016, 369쪽.

른 지역에서도 흔히 채록되는 것이다. ‘ 99型 미완설화(未完說話)’로 극적 전환을 보이는 중요한 흥미소이며 운명적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설화의 발생배경이라 할 것이다.[125]

현용준이 제주도에서 조사한 <천지왕 본풀이>라는 무가[126]의 내용과 ‘대별왕’과 ‘소별왕’이 이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내기를 하는 것은 앞의 함경도 ‘창세가’와 매우 유사한 신화소이다, 따라서 제주도에 무가로 전해지는 <천지왕 본풀이>도 결국은 북쪽에서 들어온 샤머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27] 그들은 애니미즘(精靈崇拜)적 경외감에 사로잡혀 자연계의 모든 현상과 사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들 자신의 조상들이 토템 동물이었다고 믿었다. 그들은 샤먼 (Shaman)이라는 영매(靈媒)를 통해 해를 끼칠지도 모를 정령들을 달래려 했는데, 한국의 샤먼들은 고대 일본에서처럼 흔히 여성이었다.[128]

개국시조가 땅속에서 솟아올라왔다는 지중용출(地中湧出) 화소(話素)는 제주도 삼성혈 신화를 제외하면 한국이나 그 이북지방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지중용출 화소가 나타나는 곳은 제주도를 비롯하여 구주(九州) 남부, 오키나와(沖繩), 대만(臺灣) 쪽으로 가면 꽤 많이 발견된다.

> 제주의 삼성혈(三姓穴)과 비슷한 것이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조선의 풍수>에 보이는데,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일대는 비기(祕記)에서 말하기를 금귀몰니(金龜沒泥), 금환락지(金環落地), 오보교취(五寶交聚) 3개의 진혈(眞穴)이 있어서 삼진혈(三眞穴)이라 하고, 유씨의 원조

125) 허춘, 앞의 책 346~347

126) 무가(巫歌)란 무당-제주도에서는 이를 ‘심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굿을 할때 부르는 노래를 지칭하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화에는 하늘과 땅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창조된 천지에 해와 달을 만든 것은 ‘천지왕’ 이라고 하는 절대자였습니다. 이 절대자가 처음에 해와 달을 둘씩 만들었으므로 사람들의 살기가 힘들었는데, 그의 아들이 하나씩만 남겨두고 없애 버림으로써 사람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7) 김화경,『한국의 신화 세계의 신화 』, 새문사, 2015, 60쪽.

128) 정무영, 앞의 책, 1991, 350쪽.

유부천이 이곳에 터를 잡고 초석을 정할 때 귀석(龜石)이 출토되어 이 지방 제일의 자산가가 되었다 한다. 아직도 다른 2개가 남아서 전국의 자산가들이 이사 와서 그 당시 100여 호가 넘었다고 전해진다. <타이완(臺灣)의 다이알 문수번(汶水番)사례>는 제주삼성혈의 지중용출과 같은 신화가 동남아 일대에 널리 분포하고, 삼성혈의 지중용출 신화가 남방계통의 해양문화권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고립된 섬으로 고대에 북동류하는 쿠로시오해류나 남동풍에 의해서 문화 전파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129]

삼성혈 신화의 지중용출신은 남자(男子) 삼신(三神)인데 비해서, 남방계의 것은 남녀(男女) 2인의 이신(二神)으로 구성된 것이 큰 차이점이다. 또한 한 알의 씨앗이 대지에서 죽지만 이것이 풍요를 이룬다는 곡식부활(穀食復活)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농경문화(農耕文化)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탐라국은 7세기까지는 국가의 형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에는 탐라국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 일본의 역사책인 『일본서기』에는 나라(奈良)시대에 탐라에서 보낸 사신이 다녀갔다는 기록[130]이 남아있다.

이처럼 신화는 자연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 직관적으로 파악한 것들을 상징화하여 표현된 것이다. 신화는 문자로 이룩된 역사가 서술되기 전에는 구비전승의 서사물이 역사를 대신하였다. 또한 신화는 믿는 집단의 사유체계이며, 신

---

129)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202~204쪽
태고적 '파아팟과아'라는 곳에 두 개의 구멍이 있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 한 구멍으로 부터 남자가 나오고, 다른 한 구멍으로부터 여자가 나왔다. 두 사람은 각기 자기 혼자인줄 알고 먹을 것을 구해서 산중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만났다. 두 사람은 같이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남자가 여자의 사타구니에 오목한 곳이 있음을 발견했다. 여자는 이것은 바위 속에서 나올 때 입은 상처이니 건드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며칠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고 끝내는 교접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자손이 번식해서 계류를 따라 사방으로 이주해 갔다.

130) 김화경, 『한국의 신화 세계의 신화 』, 새문사, 2015, 124쪽.
이 무렵까지는 국가의 형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이 신화는 탐라국의 건국신화였을 가능성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신화에는 양 씨, 고 씨, 부 씨, 이렇게 세 성씨의 시조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땅이 움푹 파인 곳으로부터 솟아난 인물들로 그려져 있어,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에서 비롯된 알레고리 방법은 “오로지 초월적 관념(tenor)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신화를 해석할 때는 그 ‘은유적 모호성’ 에 주의해야 한다. 신화 · 역사 · 제의, 혹은 신화 · 종교 · 주술 간의 상관관계가 문제되는데, 전자가 신화가 통시적 사건을 다룬 것인지 공시적 사건을 다룬 것인지 따져 묻는다면, 후자는 신화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묻는다 할 수 있다.[131]

삼성혈의 설화에 반영된 풍수원리는 대지에서 인간이 용출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지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시작된다. 대지의 생명력은 곤연 바위 아래에서 태어난 금와(金蛙)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인간의 기원을 지중이나 지하로 두고 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을 대지로 보고, 대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독특한 관념을 도출해낸 것이 지모신 관념이다.

물론 삼성혈 신화의 경우 시각에 따라서는 지연공동체의 농경의례와 관련성을 가지며, 또한 지연공동체의 수호신에서 시조신〔梁 · 高 · 夫씨의 시조신〕까지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시조신 개념은 조상 숭배와 통하는 개념이다.[132] 시(始)는 어떤 특정 집단의 처음을 설명한다. <단군신화>는 가장 설명하기 쉬운 예인바,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정 신단수에 내려와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고조선의 창시자이다. 그리고 고구려의 창시자는 주몽이고, 로물루스는 로마의 창시자이다. 반호(盤瓠) 는 中國의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묘족 등의 始祖神이다. <하늘의 천지왕이 지상의 총명부인과 결혼한 이야기>[133] 편에서는 천지왕이 배필을 구하기 위하여 지상으로

---

131) 이강엽 ,『신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1955, 14쪽.
神話는 인간의 공상으로 꾸며진 일이든 실제 역사의 과정에서 생긴 일을 빗댄 것이든, 신화 속에서 추구하는 바는 사실이 아닌 진실이다. 즉 진정한 인간적인 삶이 무엇이냐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 바로 그것이다.

132) 張長植, 「韓國의 風水說話 硏究」, 慶熙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2, 152쪽.

133)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하늘과 땅은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온통 깜깜한 암흑 속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어둠 속에는 무엇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혼돈’이라고 합니다. 혼돈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하늘과 땅 사이에 금이 가더니 그 사이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땅에서는 산이 솟아나고 물이 흘러내리면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분명해졌습니다. 위로 올라간 하늘에서 맑고 푸른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였고, 땅에서는 검붉은 이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합하여 세상에는 혼돈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략>

KGU

내려온 이야기이며, 제주의 땅의 모습, 산세나 지형을 보고 인간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제주의 지명이나 전설은 우리 민족의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 역사 발전의 과정, 생활 방식과 가치관 등 민족의 총체적 활동 결과가 담겨진 것으로서 고유한 역사 · 땅모양 · 생활 · 옛말 등이 포함 되어 있다. [134] 어느 국가, 어느 종족이든 그 부족의 시작(始作)을 설명하는데 신화(神話)가 따라 붙는다. 이런 신화의 주인공은 대개 현실 세상이 아닌 신성한 곳에서 절대적 힘을 지닌 존재이거나, 그 후손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역적 이동이나 외부세력과의 알력이 자주 드러나는 것은 실제 국가나 종족이 뿌리를 내릴 때의 역사적 편린으로 이해된다.

제주도에 전해오는 3을나 신화에 따르자면, 태초에는 인간이 없었는데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라는 3형제가 동굴에서 솟아났다고 한다. 그리고 동쪽 바닷가에서 흘러 들어온 나무상자에 여자 세 명과 오곡과 가축이 있어서, 3쌍의 남녀가 결혼을 하여 제주도에 사람을 퍼뜨렸다고 한다. 이 경우는 대지가 갖는 원초적인 생성력이 그대로 드러난 예이다.[135] 삼성신화의 형성과 전승 과정을 정리하여 보면 제주도의 서사무가인 당신본풀이에서 비롯되어 당신을 모시던 세 집단이 이 당신 본풀이를 시조신화화(始祖神話化)하는 과정을 거치며 형성, 전승 되었다.

> 이 세 씨족 세력이 씨족연합에 의하여 부족국가로 확대되면서 建國神話化하는 과정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다가 연합에 의한 部族國家 세력이 점차 약화되고 신라나 고려에 종속되기 시작하면서 건국신화로서의 의미가 축소 약화되는 과정을 밟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세 씨족의 족보에 기록되어 문헌으로 정착

천지왕은 우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지상의 세계로 내려왔습니다. 지상에는 그의 배필이 될 만한 '총명부인' 이 살고 있었습니다.

134) 邊昌斗,「제주도지명 및 전설과 풍수지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7,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쪽.

135) 이강엽 ,『신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1955, 98쪽.

되면서 건국신화로서의 성격보다 三姓始祖神話로 인식되어 전승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136]

어느 지역 설화나 같은 상황이겠지만, 제주 설화에는 제주인의 생활상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제주인의 독특한 삶의 지혜가 표출되어 있다. 그러나 대체로 설화에 나타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면은 도외시하고 긍정적인 면만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풍수의 개념에 따른 풍수설화는 화소별, 유형별, 지형상의 분류를 하고 있고, 지형상의 분류는 명당이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지 지형상의 기준에 따라 방법을 나눈다. 이야기 각 편에는 혈이나 형국에 관한 언급 없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물형(物形) 형국론(形局論)에 따라 종합적으로 혈 주위를 판단한다. 형국론은 이야기의 소재 차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주제별로는 양기풍수설화와 음기풍수설화로 나누었다. 이는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문제이다. 이처럼 풍수설화에는 세부적이며 구체적으로 풍수의 개념이 나타난다.

풍수설화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각 편의 내용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물론 풍수설화 각 편이 지니는 주제와 관련된 진술이다.

1) 어떤 수용자가 어떻게 해서 명당을 잡아 쓰고 발복하였다.
2)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유명한 풍수가 되었다.
3) 유명한 풍수가 어떻게 신기한 능력을 보였다.
4) 유명한 풍수가 어떻게 실수를 하였다.
5) 가풍수(假風水)가 어떻게 해서 진짜 노릇을 하고 부자가 되었다.
6) 어떤 사람이 명당을 얻고 과욕이나 금기(禁忌), 파기(破棄)로 망하거나, 명당을 파손(破損)하고 망하였다.
7) 어떤 지형을 인공적으로 보완(補完)하거나 결함(缺陷)을 제거하여 명당을 만들었다.[137]

---

136) 고병석 ,「三性神話의 儀禮的 性格과 敎育的 意味」,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3쪽.

137) 張長植,「 韓國의 風水說話 硏究 」,慶熙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2, 24쪽.

풍수설화에서 여성은 서사행위의 주인공, 또는 보조자 인데 이는 신화에 나타나는 여성의 모습과 흡사하다. 풍수설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삶의 여러 문제에 주된 관심이 놓여 있는 이야기다. 주로 결핍의 상황에서 충족의 상황으로 전이되는 삶을 추구하는 연쇄 행위를 드러낸다. 이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역전되는 계기는 물론 '명당' 이라는 특별한 공간 관념이 생기는 것이다.[138] 뿐만 아니라 명당은 신화적, 종교적으로 다른 공간과 다른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간의 차별성이 아니라 명당을 통하여 결핍된 것들을 해소(解消)시키며 충족으로 향하는 관념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순간적인 존재(存在)이며 유형적인 존재이다. 이는 현세적 삶에 존재하는 조건이 된다. 인간이 갖는 행 · 불행의 근원적 심성도 여기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충족의 추구를 성의 세계에서 기원할 때, 그것의 관념으로 표상된 곳의 하나가 곧 명당이다.[139] 이러한 관념은 복합적, 공감각적 공간으로 시, 지각을 유도하며 복합적 감성(感性)을 자극하고, 하나의 부분이나 개체의 소극적 분석으로 일관해 온다. 이는 부분적 요소별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현대에는 전일적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동양적 사유의 새로운 접근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각이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마음' 과 '정신' 또는 '의식' 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공간을 감성적 측면의 적극적이고 주관적인 총체적 사고 접근 방식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140]

---

138) 張長植, 앞의 책,140쪽.

139) 張長植, 위의 책, 142쪽.

140) 최미영,「동양적 사유에 의한 감성공간 연구」,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7쪽.

KGU

2. 삼성혈의 천지인(天地人) 삼합사상 해석

신화가 시작된 장소를 살펴보면 먼저 문화가 발생한 곳에서 태어나 성장한다. 그리고 정착한 후, 남쪽으로 내려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모습이다. 신라 혁거세 신화에서도 북쪽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부족들이 남하해 온 것을 묘사하였다. 단군신화는 천지인 3단계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조상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 동양사상에는 '마음'과 '정신' 그리고 '의식'이 있으며, 공간을 감성적이고 총체적 사고로 바라보아야 한다.

땅(地)에는 기(氣)가 흐르고 그 기(氣)의 작용에 의해 산과 물을 만들어낸다는, 혹은 땅의 기운에 의해 만물의 영고성쇠가 설명된다는 사고가 곧 풍수적 사유이다.[141] 풍수지리는 기의 학문이며, 이론적 배경에는 음양오행이 있다. 시간을 나타내는 음양론과 공간을 의미하는 오행론이 상생상극(相生相剋)의 끊임없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양의 자연은 그 스스로가 그렇다는 글자 그대로의 자유요, 자원이요, 자재인 것이다. 즉 동양은 자연주의의 보고요, 서양은 인본주의의 보고인 것이다.

서양문명에 있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는 서로 대립, 극복, 투쟁하는 이원론적인 요소에 근본을 두는 반면, 동양문명은 자연과의 조화,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일원론적 사고가 그 특징이다.[142] 동기감응(同氣感應)은 동질(同質)의 기는 서로 감응(感應)한다는 뜻[143]으로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

---

141) 이화 ,「조선조 풍수신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4쪽.

142) 심재열,「풍수사상의 입지선정 영향에 관한 연구」,인천대학교박사학위, 2010, 19쪽. 노자가「 人法地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143) 동기감응은 동산서붕령종동응(銅山西崩靈鐘東應 : 동산과 구리로 만든 종은 동질이므로 서로 감응한다.) 중국 서촉(西蜀)지방에 구리 매장량이 많은 산 이름 동산(銅山)과 중국 한 나라 때 궁성에 있는 구리로 만든 종(鐘)인 영종(靈鐘)이 감응 하였다는 고사이다. 목화어춘률아어실(木華於春栗芽於室 : 따뜻한 봄이 되면 방안에 있는 밤에도 싹이 난다.)는 의미이다. 따뜻한 봄이 되면 나무에서도 꽃과 잎이 무성하게 나고 방안에 있는 밤에도 싹이 튼다. 즉 그 본질이 기를 받으면 서로 감응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리지만 나뭇가지가 바람을 불러올 수는 없다. 여름이 끝날 무렵이면 귀뚜라미나 쓰르라미가 울기 시작한다. 음기에 감응했기 때문이다.

> 천문역법가(天文曆法家)의 계산에 별자리 28수(宿)로써 증명해보면, 28수가 태양과 달이 머무는 곳에 위치한 모습은 땅 위에 역참(驛站)이 있어서 관리가 머무는 곳으로 사용하는 일과 같고, 역참이 땅에 붙어 있는 모습은 별이 하늘에 깃들어 있는 일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144]

봄의 천둥소리에 꿩이 놀라거나, 동면한 벌레나 뱀이 기어 나오는 현상은 양기에 감응했기 때문이다.[145] 감응설은 같은 기운은 서로 통한다는 이론이며, 땅에 대한 숭배이며 지모사상(地母思想)에 근거하고 있다.[146] 삼성혈은 '천지인' 삼합사상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三을 설문해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숫자 '三' 은 먼저 수의 이름(數名)이고, 하늘, 땅, 사람의 도(道)를 뜻한다. 자형을 보면 '一(일) '과 ' 二(이) '가 짝하여 ' 三 '이 되었으니 완전수〔成數〕이며, 三부에 속하는 漢字는 모두 三의 의미를 따른다. '三' 은 陰陽의 數를 함께 말한 것이다. '一(일)' 부에서 "도(道)는 一에 근거한다." 라고 하고 '二(이)' 부에서 "땅의 수다." 라고 했으며 '王(왕)' 부에서 "三이란 하늘, 땅,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노자(老子)>는 "一은 二를 낳고 二는 三을 낳고 三은 만물을 낳는다. "[147] 라고 하였다.

---

144) 왕충,『 논형 』,동아일보사, 2016, 412쪽.

145) 왕충, 위의 책, 548쪽.

146)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171쪽.

147) <老子> 42장에 나오는 구절.
염정삼, 『 설문해자주 』, 부수자 역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7, 23-24쪽.
(1) 陳煥曰, 數者, 易數也. 三兼陰陽之數言. 一下曰, 道立於一. 二下曰, 地之數. 王下曰, 三. 天地人也. 老子曰,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此釋三之義, 下釋三之形, 故以於文 二字別言之 (2) 此依韻會所引, 韻會多據鍇本, 今鍇本又非舊矣. 耦, 各本作偶, 今正. 二 下曰, 一耦一. 以一也. 此曰, 一耦二爲三. 以一儷二也. 今又皆脫一字. 三畫而三才之道在 焉, 故謂之成數. 又字手之列多, 略不過三. (3)穌甘切. 古音在七部.

우리나라에서는 삼(三)이란 숫자가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원래 삼신(三神)이란 상고시대 우리나라를 개국했다는 세 신 즉, 환인(桓因), 환웅(桓雄), 환검(桓儉; 단군)을 뜻한다. 환인은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뜻을 둔 것을 알고 천부인(天符印) 3개를 주어 인간세상으로 내려 보냈다. 환웅은 인간들의 360가지 일을 맡아서 다스리며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단군신화가 그 토대[148]이며, 삼신 할머니는 국가 탄생이라는 국조신화(國祖神話)와 연관되어있다. 제주문화 속에 '3'의 의미는 민중문화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3'에 대한 관념을 인류의 보편적 관념으로 동아시아와 공유 더 넓게 보기도 하였다. 김승호는 『주역인문학』에서, 팔괘가 3으로 이루어진 이유에서 공간은 근본적으로 무한히 존재한다. 3은 완결성을 말한다. 끝없는 2개의 양 끝에서 3의 위상수학의 만남은 영원히 지속되는 음양의 작용력을 주역의 3차원적 요소로 설명하였다. 대별왕 소별왕이 어디를 다스릴지 결정하는 수수께끼가 세 개고 사건의 중심이 되는 주인공도 셋째 딸 셋째 아들이고, 가위 바위보도 셋이 모여 결정의 수단이 된다. 숫자3은 온전함과 전체의 합이라는 개념으로도 흔히 쓰인다.[149] 이처럼 三은

148) 이상언, 한국 무(巫) 명칭의 어의, 한국민속학 16호(일연, 삼국유사, 단군신화 참조), 1983, 17쪽.

149) 고혜경,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한겨레출판(주) www. hanibook.co.kr, 2010, 70쪽.
'3'은 새벽의 숫자다. 새벽이란 지금은 밤의 어둠(陰)과 낮의 밝음(陽)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더욱 밝아져가는 발전성이 있다. 그것은 동쪽의 기운이고 추움과 따뜻함의 둘 다를 가지고 있는 봄을 생(生)하는 기운이다. '3'이라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통일, 조화, 봄, 생, 동쪽을 뜻한다. '1'은 우주 전체를 뜻하는 태극의 숫자이고 통일과 조화를 뜻한다. '1'은 음(陰)과 양(陽)을 반반씩 가지고 '3'도 음과 양을 반반씩 가지고 있다. 그러나 '3'은 '3'을 말하기 전에 '1'에 해당하는 하늘과 '2'에 해당하는 땅을 생각해야한다. '' 1은 '1'을 말하기 전에 '2'와 '3'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3'은 '1'과 '2' 없이는 존재 할 수 없지만, '1'은 '2'와 '3'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사람은 하늘(宇宙)과 땅 없이는 존재 할 수 없지만, 우주는 땅과 사람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1'이 아니라 '3'이 양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3'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1'과 '2'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 1은 하나의 수량(數量)을 말하지만 동시에 사물의 전체(全體)를 나타내기도 하며 태극(太極)을 나타내는 수이다. 음양(陰陽)이치를 보면 '1'은 아무런 다른 수와 섞이지 않은 순양(純陽)의 수이다. 그리고 최초의 수이므로 '1'에서부터 모든 사물이 생겨난다는 탄

결정적인 확신을 위해 사용되었다.

〈표-6〉 3 숫자가 가리키는 의미

출처	원의	의미
〈퇴계집〉 계몽전의	3은 하늘의 상	3은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로 인식
	주역에 진짜수가 있는데 3뿐이라 하늘은 셋으로 한다	3은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로 인식
백호통의	천도는 3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천에는 삼광 즉 해와 달과 별이 있고 지에는 삼형 즉 높은곳, 낮은곳, 평지가 있고, 사람에게는 삼등 즉 군부, 부친, 스승이 있다. 물은 3으로 완성되므로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	3은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로 인식
〈역학계몽〉 본도서	하동의 하늘의 상은 원형이고 그의 수는 3이다	3은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로 인식
황극경세서	역에 진수가 있으니 3이다. 3의 하늘은 3에 3을 곱하면 9가된다.	3이 진수이지만 최고수는 9로 황제를 의미
	용(用)은 3에서 그치고 9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자료출처〉 박정해, 풍수이야기, 씨아이알, 2014, 197쪽

삼성혈의 3은 하늘을 나타내고, 각 혈의 0 모양은 역시 동양에서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 하여 하늘을 나타내고 있다. 즉 쌍천(雙天)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상에서 땅과 같이 있어서 천지(天地)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 구멍(穴)에서 고량부 3성이 탄생했다는 것은 사람을 '인(人)'이라 부르지 않고 '사이 간(間)'을 사용하여 '인간(人間)'이라고 부르는 동양철학과 기막히게 상통하고 있다. 즉 삼성혈의 삼(三)은 하늘(天)을, 구멍(穴)은 땅(地)을, 고량부 3인 탄생은 사람(人)을 나타내기에 천지인(天地人) 3요소가 삼성혈에 상호공존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이 대하는 3이란 숫자는 아주 의미가 깊다. 삼(三)이

생(誕生)의 뜻이 담겨져 있다.

란 삼신할머니, 삼색실, 삼불제석(三佛帝釋), 삼세번, 삼배, 만세 삼창, 강서삼묘, 삼작 노리개, 삼족오(三足烏), 삼태극, 삼지창, 삼문, 사회봉도 3번 두드림 등 한국 신화의 기층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사당건축물도 일반적으로 3칸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주자가례에도 '사당의 제도는 3칸이다' 라고 되어있다. 삼성혈은 사신사에 근거한 삼신의 조화로 볼 수 있다. 천지인 삼합사상에서 인간과 영혼의 합일사상이 나타나며 이 숫자는 삼신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삼신산[150]의 이름이 붙여졌다.

> 혈이나 명당은 사신사(四神砂)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사격(砂格)의 사신사(四神砂) 는 고대인의 신앙인 삼신오제사상(三神五帝思想)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삼신이란 하느님의 조화(造化)· 치화(治化)· 교화(敎化) 세 가지 능력의 삼위일체(三位一體)를 말하고, 오제(五帝)는 동서남북과 중앙의 5개 방위에서 하느님의 업무를 나눠서 수행하는 분신(分身)을 말한다.[151]

『주역인문학』에서 '혼돈과 질서' 는 신화에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과학에서도 우주의 시작은 혼돈스러웠고 차츰 질서가 생겨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152] 신화는 수 천년동안 걸쳐 전해온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복잡하여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건국신화의 '천지인' 결합에서 '대응적 구조' 로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다. '대응적 화합' 과 통일감의 사유방식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융합이다. 한국 고대 신화(神話)를 통해서도 한국적 원초적 사유인 '천지인' 사상을 알 수가

---

150)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
삼신의 조화는 三神思想에서 비롯되었다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은 태일(太一), 작은 두 섬은 천일(天一)과 지일(地一)을 뜻한다. 경회루에는 돌다리가 세 개 있는데 이는 삼신이 출입하려면 길이 세 개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4,500년 전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어진 강화도의 마니산 참성단도 삼신사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축조물이라 할 것이다.

151) 심재열,「풍수사상의 입지선정 영향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 2010, 149쪽.

152) 김승호, 『주역인문학』, 다산북스, 2015, 68쪽.

있다. ‘천인합일(天人合一)’은 유교의 중심적인 사상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동체 윤리가 담겨 있다. 박정해는「朝鮮 儒敎建築의 風水的 特徵에 關한 硏究」에서 천지인 삼합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太極圖說』은 많은 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향교(鄕校)와 서원건축(書院建築)의 공간구성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제향공간(祭享空間)은 先賢에 대한 恭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하늘에 해당하고 땅에서 태어나 땅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 한 문루(門樓) 혹은 외삼문은 땅에 해당한다. 사람의 도를 배우고 익히는 배움의 공간 즉 명당은 인간을 의미한다. 즉 선현을 제사 지내는 공간을 가장 높고 신성시 되어 하늘에 해당하는 공간에 모시고 속세와 경계를 이루는 출입문의 공간을 땅이라 할 때, 講學空間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人間의 空間을 구현하고 있다.[153]

삼성혈은 처음 조성될 당시만 해도 개소리, 닭소리가 들리지 않는 인가(人家)와 멀리 떨어진 신성한 곳으로서 탐라국 시조를 모셔 제사를 지내기에 적소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변에 광양성당, 광양초등학교, 보성시장과 주택가가 자리하는 곳으로 변하였다. 사적으로 지정된 지역은 모두 3만 3,833㎡에 이르며 돌담이 둘러쳐진 가운데 전체적으로 원형을 이루고 있다. 원형의 돌담은 각석을 겹담으로 쌓아 둘렀다. 혈의 형태가 원형인데 돌담도 원형으로 둘러친 것은 다 같이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 하여 하늘을 뜻하는 것이다.

태극이 음과 양을 낳고 다시 음과 양에서 하늘과 땅이 생겨났으며 그 속에서 만물이 생겨 삼라만상이 나타난 것[154]으로 보았으며 천지만물은 음양오행의 바탕아래 음양으로의 생기이며, 상생하는 기(氣)이기도 하다. 지중생기설은 땅속으로 생기가 끊임없이 흐르고 기가 모인 곳을 말한다.

---

153) 박정해,「朝鮮 儒敎建築의 風水的 特徵에 關한 硏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317쪽.

154)『周易』,「繫辭上傳 11장」· 是故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

> 지중생기설은 살려주는 氣 즉 생기(生氣)를 강조한다. 氣는 사물 생성의 재료이다. 구체적 사물의 생성은 기가 재료이고 리가 형식(형상)이다. 재료라는 명사는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질료(Matter) 의 의미이다. 이른바 질(質)이란 더 가시적인 재료를 지칭한다.[155]

장횡거는 "기질지성"에서 천인합일을 이렇게 말한다. 개체의 나를 "나"로 여기고 그 밖의 것은 "나 아닌 것" 으로 여기는 일이 "감각적 지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얽어매는" 일이다. 성인은 그 얽어맴을 타파하여 천하의 사물과 자기를 일체로 여기는, 즉 "천하 만물을 몸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가 천하의 한 사물이라도 '나 아닌 것'은 없다고 여기는 것"은 나와 나 아닌 것의 한계를 타파하여 나와 여타의 '나 아닌 것'을 하나로 여기는, 즉 우주전체를 하나의 큰 나(大我)로 여기는 것이다. 하늘은 커서 바깥이 없는데 내가 수양하여 그 경지에 이르면 나와 하늘은 합하여 하나가[156] 되고, 성인의 '숭덕광업(崇德廣業)' 이란, 덕성을 숭상하고 업적(業績)을 넓히는 것인데 이는 천도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늘로부터 높은 숭을 본받으며, 땅의 낮은 예를 법칙으로 삼는 것은 천하의 도리이다. 곧, 하늘의 높은 진취적 기상과, 땅의 너그러운 예의와 겸손의 미덕을 갖추고 천도의 도리로 성인이 되는 것이다. 대지의 상관 방식의 상호 역동적 관계에서 인간의 인격이 갖추어야 할 궁극적인 완성의 경지를 보여주는데, 이런 의미는 "본성을 이룸이 계속하게 존속되니 도의(道義)의 문(門)이 된다."[157]라는 것으로 제주의 공간적 의미부여와 천지인(天地人)을 존재론적(存在論的) 가치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

155) 풍우란,『 중국철학사 』, 까치글방, 1999, 546쪽.

156) 풍우란,『 앞의 책 』, 491쪽.

157) 朴愛蘭,『 生命思想, 生態易學觀과 人間學的 位相』,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68쪽.

KGU

3. 삼성혈의 지모사상과 생명탄생 원리해석

음양사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음의 기본이 되는 땅과 양의 기본이 되는 하늘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이러한 이원적 해석은 삼신사상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삼신사상에서는 자연을 천일(天一), 지일(地一), 태일(太一)의 3가지로 구분한다. 천일은 하늘의 기운을, 지일은 땅의 기운을, 태일은 영적인 힘을 말한다. 삼성혈은 이 원리에 완벽하게 일치한다. 혈(구멍)은 천일(하늘), 땅은 지일을, 이 혈에서 고량부 3인이 탄생했다는 것은 태일을 말한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지인 삼합의 원리는 하늘과 땅에는 혼(魂)이 있고, 하늘의 영혼(靈魂)은 하느님이며 땅의 영혼은 토지신(土地神), 지신(地神)이다. 사람이 정(精) · 기(氣) · 신(神)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듯이 땅도 토질(土質) · 기운(氣運) · 지신(地神)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살아 있는 생명체[158]로 존재하였다. 삼신인(三神人)이 지중에서 솟아났다는 것은, 곡식이 땅에서 자라 나오는 상징이거나 지모신이 신인을 출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지중용출은 탄생의 의미를 가지면서 곡식 부활의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즉 삼신인은 지중의 매몰과 지상의 용출을 보임으로 조상신, 생산신으로 숭상되었던 것이다.

> 곤연 바위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金蛙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인간의 기원을 지중이나 지하로 두고 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의 근원을 대지로 보고, 대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독특한 관념을 도출해 낸 것이 지모신 관념이다. 물론 삼성혈 신화의 경우 시각에 따라서는 지연공동체의 농경의례와 관련성을 가지며, 또한 지연공동체의 수호신에서 梁·高·夫씨의 시조신까지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시조신 개념은 조상 숭배와 통하는 개념이다.[159]

158) 심재열,「풍수사상의 입지선정 영향에 관한 연구」,인천대학교 박사학위, 2010, 111쪽.

159) 張長植,「 韓國의 風水說話 硏究 , 慶熙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2, 152쪽.

宋代 서자평이 쓴 『연해자평』은 우주적 원리와 직접 맞붙어 인간의 운명을 탐구하고자 했던 서책으로 이 책 卷 三의 보법 第 一편에서는 “대저 음양을 품고 천지간에 태어났으므로, 조화가 사람에게 부여되었으며, 조화를 품고 태어난 것은 만물도 역시 사람과 같으니, 음양의 변화에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길흉과 휴구(休咎),(吉凶禍福)를 추론하는 것은 이런 이치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술수가의 법칙이 진실로 많은 것은 자평의 밖에서 없는 것을 탐구하고 모으며 찾기 때문이다.” 160)라고 하였다.

삼신인(三神人)이 지중에서 솟아났다는 이 용천은 제주민들에게 식수문제 해결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삼성혈도 용암대지의 말단부 용천이 풍부한 해발 50m내외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물이 솟아나는 구멍(穴) 즉 이 용천의식에서 삼성혈이 탄생한 것이다. 제주인에게 물이 솟아나는 구멍(穴)이 갖는 의미는 생명과 직결되고 신성시되는 것이다. 장자의 무궁함과 위대함은 생명력이 충일한 풍성함이 있다. 위로는 조물자와 함께 놀며, 아래로는 생사를 벗어나고 시간을 초월한 자와 벗하는 것이 그의 경지이다.161)

암수관념으로 땅을 보는 詩인 자웅시편(雌雄詩篇)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암수가 덕으로써 만남(慶會)은 천금의 가치인데, 이렇게 암수가 만나서 이뤄지는 주산과 혈의 모습은 손바닥 안을 들여다보듯 분명하다. 혈을 향해 절을 하는 조산(朝山)과 穴을 감싸 도는 빼어난 물이 있다면 몇 대에 걸쳐 벼슬을 할 것이며 뭇 사람들의 존경162)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삼신인(三神

---

160) 오청식,『 淵海子平』, 대유학당, 2008, 477쪽.
夫稟是故推人吉凶休咎, 斯理昭著, 然術家之法固多, 究徵索子平之外未有矣, 陰陽而生天地間, 故造化之賦於人也, 稟造化而生, 物亦如之, 莫不由陰陽變化,

161) 김원일,『장자』, 북마당, 2010, 344쪽.
其書雖瑰瑋而連狁無傷也. 其辭雖參差而諔詭可觀.
彼其充實不可以已
上與造物者遊 而下與外死生無終始者為友.
其於本也 弘大而辟 深閎而肆.
其於宗也 可謂稠適而上遂矣. 雖然
其應於化而解於物也 其理不竭
其來不蛻 芒乎昧乎未之盡者.

162) 김원일, 앞의 책, 345쪽.

人)이 지중에서 솟아났다는 설화적 요소와 암수관념으로 땅을 보는 시(詩)인 자웅시편(雌雄詩篇)의 풍수적 분석은 삼성혈에서의 생명탄생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대목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삼성혈의 혼인지(婚姻地)는 단순히 세 쌍의 남녀가 만나 목욕하고 혼례를 치렀다는, 그런 전설의 현장만은 아니다. 이들의 삶은 고대인들이 수렵에서 농경생활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씨족 형성의 단서를 제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기운이 좋은 곳에서 자손을 잉태한다는 명당취길 사상도, 제주 삼성혈의 삼신신화(三神神話)처럼 전승돼오고 있다.

소강절은 "형체는 상에서 생기고 상은 수로부터 베풀어진다." 천하의 사물은 모두 형체이다. 수가 있은 다음에 상이 있고 상이 있은 다음에 형체가 있으니, 수가 가장 근복적인 것이다. 상술한 『역위(易緯)』에서의 역설(易說)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런 경향은 여기에 이르러 명백히 표명되었다.

> 제주도의 삼성혈도 제주도 탄생이라는 고량부 3인의 탐조신화(眈祖神話)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태고대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의 삼신이 이 웅덩이에서 태어나 천사가 데려온 세 처녀를 배필로 삼아 살면서 탐라국을 세워 제주도의 개조(開祖)가 되었는데, 이들을 모시는 신사가 삼성사이다. 삼신 할머니는 이러한 의미로 국가 탄생이라는 국조(國祖)신화와 관련이 있다. 특히 삼신(三神) 자손이라는 말에서 우리민족은 이 세 신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강하게 나타나있다.
>
> 인도 철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바람처럼 흩어진다고 하는데, 바람과 흙이 바로 사대라는 개념에 들어간다. 다른 2가지는 물과 불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4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 상징적 개념이다. <중략> 기실 영혼이란 바람처럼 형체가 없고 자유로운 성질을 갖고 있으며 바람과 닮았다. 몸이 흙이라는 것은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다는 개념에 다름 아니다. 사대 이론은 그럴 듯하다.[163]

雌雄慶會値千金 形穴分明似掌心 更得朝巒幷秀水 爲官世代衆人欽 雌雄不會不勞看 任爾時師道好山 下後令人家退落 朝城不對盡虛閒 .

주산은 부자조손(父子祖孫)의 동일한 기로, 편안함에 있다. 산은 곧,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드는 부모와 동일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초목의 뿌리와도 같고, 혈은 꽃이 피어있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천신을 모시고 조상을 시조로 받들어 제천의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경칩이 지난 적적한 시기에 기우제를 지내는 등, 농경사회의 틀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곧, 제주삼성혈은 대지의 생산력을 토대로 한 지모신신앙(地母神信仰)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삼성혈의 대지에서 인간이 용출했다는 것은, 대지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관념으로 부터 시작된 것이다.

163) 김승호,『주역인문학』, 다산북스, 2015, 27쪽.

Ⅴ. 결론

이상과 같이 제주 삼성혈의 풍수와 신화적 의미를 해석해 보았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해양 지리적 특징 때문에 벽랑국 세 공주가 배를 타고 왔다는 해양신화가 탄생될 수 있었다. 벽랑국에서 떠내려온 3명의 처녀가 연혼포에 상륙하여 혼인지에서 결혼을 하였고, 삼사석은 활을 쏴서 살터를 나누어 정했던 곳이다. 고 · 양 · 부(三姓神話)씨가 최초로 정착한 일도, 이도, 삼도는 토지의 비옥도나 수리사정, 한반도(韓半島)와의 교섭관계, 어로조건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취락입지의 최적지였으며, 제주탄생의 시조인 고량부 3인의 탄생이 이루어진 곳이다. 또한, 삼성혈은 이미 고려사에 모흥혈로 기록되어 있고, 조선 중종때 성역화된 삼성혈이 고지도인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풍수지리(風水地理)의 이론적(理論的) 기초는 음양오행(陰陽五行) 사상을 바탕으로, 용(龍), 혈(穴), 사(砂), 수(水), 향(向)등 지리오결(地理五訣)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는 지역적 특성상 풍수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바람을 막아야 할 사격(砂格)이 필요한 곳에 삶의 터전을 만들고 있다. 현재 삼성혈은 도시화 진행으로 인한 주변사격의 훼손 등으로 풍수적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1 / 5000 또는 1 / 25000지도를 활용하여 용의 흐름이나 사격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삼성혈의 풍수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성혈의 태조산은 한라산이고, 중조산은 들위 오름이며, 주산은 오구시 오름이다. 안산은 해발 30.5m의 제주성지이며, 좌청룡은 해발 57.8m의 광양성당이 해당된다. 낙산은 해발 52.7m의 삼성초교이고, 우백호는 55.3m의 신산공원이 해당된다.

둘째, 삼성혈은 오목한 와혈이다. 삼성혈은 신산(神山)인 한라산의 북쪽 완만한 산록 평탄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움집형태의 구멍에서 삼신인이 용출하였다. 세 개의 구멍은 곧 세 공주라 해석할 수 있는데, 삼신인의 탄생과도 연

결할 수 있다.

셋째, 삼성혈은 호순신의 지리신법에 부합한다. 호순신의 술법에서 미(未) 입수룡은 대오행으로 토(土)이고, 토국에서 득수처 진(辰)은 포태법으로 양(養)이며, 구성법으로 살펴보면 탐랑(貪狼)에 해당된다. 파구처 계(癸)는 포태법으로 임관(臨官)에 해당하며, 구성법으로는 무곡(武曲)의 길(吉)한 방향이다. 결론적으로 길한 방향에서 득수하고 흉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호순신의 지리신법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반면에 물을 보고 향을 정하는 88향법으로는 계향(癸向), 계파(癸破)로, 이는 좋은 방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삼성혈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좌계향(丁坐癸向)으로 북향이다. 이는 북향제례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중앙에 있는 왕에게 충성을 하겠다는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입수룡은 미(未)룡이며, 천간지지방위로 볼 때 음(陰)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핵심에 해당하는 삼성혈의 설화와 풍수에 적용된 원리를 살펴보면, 인류의 시작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는 곧 공동체와의 소통이며, 생명의 시작점으로 생각과 마음이 확장된 것이다. 제주 삼성혈도 용암대지의 말단부 용천이 풍부한 해발 50m내외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물이 솟아나는 구멍(穴) 즉, 이 용천의식에서 삼성혈이 탄생한 것이다. 제주인에게 물이 솟아나는 구멍(穴)이 갖는 의미는 생명과 직결되어 신성시되고 있으며, 삼신인이 솟아났다는 화소는 대지를 모성원리로 파악하고 지모신 신앙이 밑받침된 것으로 본다. 또한, 삼신인(三神人)이 지중에서 솟아났다는 것은, 한 알의 씨앗이 대지에서 죽지만, 이것이 풍요를 이룬다는 곡식부활(穀食復活)의 의미이며, 땅에서 자라 나오는 것의 상징이거나 지모신이 신인을 출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농경문화(農耕文化)의 반영으로 조상신과 생산신으로 숭상되었던 것이다. 즉, 명당의 핵심이라고 하는 혈(穴)은 여성의 자궁(子宮)과도 같으며, 생명력(生命力)과 관계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음양(陰陽)의 결합으로 생명이 잉태(孕胎)되는 것이고, 혈(穴)에서 천지인 삼합사상과 생명탄생의 원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처럼 혈은 천지의 결합이며, 생명을 만드는 기운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삼성혈은 천지인 삼합(天地人 三合)의 원리라 해석할 수 있는데,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천원지방(天圓地方) 원리, 상수학(象數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삼성혈의 삼(三)은 하늘(天)과 땅(地), 사람(穴)을 말한다. 삼신할머니, 삼색실, 삼불제석(三佛帝釋), 삼세번, 삼배, 만세 삼창 등은 한국 신화의 기층요소라 할 수 있으며, 삼신 할머니는 국가 탄생이라는 국조신화(國祖神話)와 연관해 볼 수 있다. 특히 삼신(三神)의 자손이라는 말에서 우리민족은 이 세 신의 자손이라는 뜻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제주 삼성혈 탐라국(耽羅國) 개국에서 혈을 세 번 밀어내려 명당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삼승(三乘)의 개념이다.[164] 이는 땅에 대한 숭배이고, 공간질서의 본질(本質)에 대한 순응이며, 지모사상(地母思想)에 근거한 생명 탄생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 삼성혈은 하늘과 땅 사이 구멍에서 고, 양, 부 3성이 탄생했다는 것은 지모신(地母神) 사상의 반영으로, 생명탄생의 원리와 부합하고 있다. 또한 풍수와 신화적 의미의 해석은 제주인의 삶과 사고가 반영되어 있으며, 경험적(經驗的) 리얼리티의 정황과 풍토로 만들어진 신화화된 인간의 주체적 의식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동양사상이 반영된 삼성혈 신화에 대해 본 연구를 보완하는 보다 진전된 논리와 해석이 이루어지길 바라본다.

164) 邊昌斗, 「제주도 지명및 전설과 풍수지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7,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3쪽.

KGU

참 고 문 헌

Ⅰ. 原典類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地理正宗』
『撼龍經』
『春秋繁露』
『錦囊經・靑烏經』
『疑龍經』
『地理新法』
『世宗實錄地理五訣』
『老子』
『설문해자』
『周易』
『地理人子須知』

Ⅱ. 飜譯本

辛盛銀역, 『錦囊經・靑烏經』, 자유문고 , 2005.
신평 역,『 地理五訣』, 동학사, 2008.
邵康節 저, 노영균 역,『皇極經世書』, 대원출판사, 2002.
〔宋〕蔡成禹, 김두규 역,『明山論』, 비봉출판사, 2004.
이중환, 이익성 옮김,『택리지』, 을유문화사 2013.
李重煥, 정무영 옮김,『택리지』, 을유문화사, 1993.

楊筠松, 김두규역,, 『疑龍經』, 비봉출판사, 2009.
양균송, 김두규 역해, 『감룡경·의룡경』, 비봉출판사, 2009.
오청식,『 淵海子平』, 대유학당, 2008,
蔡成禹 김두규역, 明,山論, 비봉출판사, 2004.
호순신, 김두규 역해,『 地理新法』, 比峰出版社, 2001.
최창조 역,『 청오경 금낭경』, 민음사, 1993.

Ⅲ. 單行本類

김승호,『주역인문학』, 다산북스, 2015
.김원일,『장자』, 북마당, 2010.
김화경,『한국의 신화 세계의 신화』 , 새문사, 2015.
김추윤,『남상방위고』, 신흥대논문집, 제25집, 신흥대학교, 2002.
姜錫午,『新韓國地理』, 새글사, 1971.
권혁재, 『한국지리』, 법문사, 1987.
고혜경,『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한겨레출판(주), 2010.
노병한,『고전풍수학원론』, 안암문화사, 2006.
박시익,『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박정해, 『풍수이야기』, 씨아알, 2014.
박정해, 朝鮮 儒敎建築의 風水的 特徵에 關한 硏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박정해, 한동수, 『서울문묘입지의 풍수적 특징분석』, 동방학 제21집, 한서대동양고전연구소, 2011.
서유구, 안대희옮김,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게, 2006.
이강엽 ,『신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1955.
이대현,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엮음,『한강학의성리학적 재발견』, 역락, 2018.
이몽일,『韓國風水思想史』, 명보문화사, 1991.
이형상, 이상규 · 오창명 옮김,『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오강남,『도덕경』, (주)현암사, 1995.

吳洪錫,『聚落地理學』, 敎學硏究社, 1989.
요하네스 페르, 『언어학과 기호학 사이』,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2.
왕충,『논형』,동아일보사, 2016.
윤갑원,『도선 통맥 풍수』, 도서출판 미래 2008.
정무영, 『동양문화사』(상), 을유문화사, 1991.
張基成, 『象數易學』, 中國廣西科學技術出版社, 2009.
전봉희, 이강민,『3칸X3칸』, 서울대출판부, 2008.
조성산,『17세기 후반 경기지역 서인 상수학풍의 형성과 의미』, 한국사연구 115집, 2001.
정경연,『정통풍수지리』, 평단, 2008.
조남선, 『창덕궁의 풍수지리적 입지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서학위논문, 2005.
玄容駿.『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현길언,『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1981.
최창조,『좋은땅이란 어디를 말하는가』, 서해문집, 1990.
최창조,『韓國의 風水思想』, 민음사, 1989.
村山智順 저, 최길성 역,『 朝鮮의 風水』, 民音社, 1990.
풍우란,『중국철학사』 , 까치글방, 1999.
현용준,『제주도 무속자료사』, 신구문화사, 1980.
허춘,『제주 설화 연구』, 경인문화사, 2016.
현용준,『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Ⅲ. 論文類

김헌선,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巨食性의 의미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고병석, 「삼성신화의 예의적 성격과 교육적 의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전공, 2004.

박정해, 「朝鮮儒敎建築의 風水的 特徵에 關한 硏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朴愛蘭,「生命思想, 生態易學觀과 人間學的 位相」,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이화 ,「조선조 풍수신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심재열,「풍수사상의 입지선정 영향에 관한 연구」,인천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0.
張長植,「韓國의 風水說話 硏究」, 慶熙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2.
유예상,「노자사상적 관점에서의 공간해석과 실험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3.
邊昌斗,「제주도 지명및 전설과 풍수지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최미영,「동양적 사유에 의한 감성 공간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Ⅳ. 學術紙類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자료보고서』, 1969-1981.
명월향토지, 명월향토지편찬위원회, 2003.
이상언, 『한국 무(巫) 명칭의 어의, 한국민속학』 16호(일연, 삼국유사, 단군신화 참조), 1983.
삼성혈제『三姓穴祭』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삼성혈 『三姓穴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 편』, 국립 민속박물관 2009. 11. 12.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학회, (www.poongsoojiri.co.kr검색일 2018년 2월 10일).
제주유맥육백년사, 1997.
최창조, 『풍수에 대한 지리학적 해석』, 월간 <廣場> 4월호, 1988년 4월.
허남춘, 『삼성신화 일고찰』, 제주도 언어민속촌, 제주문화, 1992.
한국문화 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 동아출판사, 1992.

Abstract

MA.(MS) Thesis

Feng-Shui of Jeju Samseong Hyeol and the Interpretation of its Mythological Significance

Park, Hye-jeong
Major in Oriental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of Art
Kyou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Feng-Shui of Samseong Hyeol and the interpretation of its mythological significance based on the theory that human beings should be placed in mutual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spatial order.

Jeju Samseong Hyeol is the cradle of Tamra myth in Jeju area where three families of Go, Yang and Bu settled for the first time. In Samseong Hyeol, a person performed sacrifice to Heavenly god called Cheongun, and the tribe was emerged as ancestor. This ordering of the Samseong Hyeol rite made it possible to form a community in human life. Also, the fact that the Samseong Hyeol

KGU

erupted from the earth has started from the notion that the earth has life force. In other words, the birth of three families of Go, Yang and Bu out of a hole between heaven and earth is consistent with Oriental thought, reflecting the faith in the Goddess of Earth based on the productive power of the earth.

The principle of Cheon-Ji-In Samhap of Samseong Hyeol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and the principle of CheonwonJibang, and the numerology. The three of Samseong Hyeol refers to Heaven, Hole, and Earth, which is the concept of the cube. From there, three gods of Go, Yang, and Bu were erupted, and this is the Three-gods idea. In addition, Hyeol, the core of propitious site, is like the womb of woman, and the space related to life force. In other words, life is conceived by the union of Yin and Yang, and the principle of Cheon-Ji-In Samhap and the principle of life birth out of Hyeol. In this respect, the three Seong Hyeols that produced three families of Go, Yang and Bu are the subjective consciousness of mythicized men who are made in the conditions and climate of experimental reality.

Therefore, Feng-Shui of Jeju Samseong Hyeol and the interpretation of its mythological significance can be said to be the nativity tale of the ancestors that reflect the life and thought of the Jeju people. At the beginning of mankind, the earth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myths, legends, and folklore. The earth is

KGU

communion with the community, and the starting point of life where the mind and heart are expanded. In the end, the birth of myth also means that mountain, water, direction, and human beings must be placed in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s a way to enjoy a harmonious life between man and nature.

Key words: Samseong Hyeol, the Goddess of Earth idea, principle of life birth, Feng-Shui, nativity tale, life of Jeju people, Yin-Yang theory

KGU